

b o o k i e p u b l i s h i n g h o u s e



**부키
도서목록
2012**

book catalogue 2012

경제·경영

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4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쁜 사마리아인들 ... 5 |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국가의 역할 ... 6 | 과도난마 한국경제·사다리 건너치기·개혁의 뭇 ... 7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 9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 10 |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자본주의 사용설명서·블루진, 세계 경제를 읽다·메이저리그 경영학·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 11

세상 고쳐 쓰기 ... 12 | 전략 퍼즐 ... 13 |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따로 있다 ... 14 | 결국 시장이 문제다 ... 15 | 아버지의 가계부 ... 16 | 잘 벌고 잘 쓰는 법·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한국의 보노보들·보노보 혁명 ... 17 | 불안한 번영·시장인가? 정부인가?·경제학의 향연·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자기 조직의 경제 ... 18 |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경제사 오디세이·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좋은 인재 나쁜 인재·한국의 부농들 ... 19

자기개발

무취미의 권유 ... 20 |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Stopping 소핑·4시간 ... 21 | 성공의 축지법·그녀들은 어떻게 CEO가 되었나?·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면접의 정석·마법의 세일즈 토크 ... 22

사회

봉하일기 ... 23 | 오! 당산들의 나라 ... 24 | 긍정의 배신 ... 25 |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 못이야 ... 26 |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 27 |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알파독·미래에서 온 편지 ... 28 | 한국 외교 24시·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작은 정부론·중국모델론 ... 29

문학·예술

클래식 사용설명서 ... 30 | 일상 활용 긍정 사전 ... 31
푸르메 책꽂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 ... 32 | 숯버스·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 자녀 평생 설계·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 33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황혼의 들판 ... 34 | 모털 엔진·사냥꾼의 현상금·악마의 무기 ... 35 | 아서왕, 여기 잡들다 ... 35
정숙영 사바이 인도차이나 ... 36 |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무대책 낙천주의자의 무규칙 유럽 여행·엄마와 두 딸의 발칙한 데이트 ... 37
마이 리틀 레드북 ... 38 | 레이스 뜨는 여자·까칠한 가족·까칠한 가정부 ... 39 | 옵티미스트·미셸 오바마·가족지 말고 당당하게·쉿, 조용히! ... 40 | 어머니를 돌보며·돌아보면 매일이 축복입니다·선비들의 고단한 여정·백수 산행기 ... 41

영양제 119 ... 42 | 엄마는 모르는 내 아이 속마음 ... 43 | 참 쉬운 마음 글쓰기 ... 44 | 한국 가정 요리 ... 45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 47

뇌는 답을 알고 있다·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 48 | 시시콜콜 생생육아·고양이가 기가 막혀!·강아지가 기가 막혀!·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 49

세상이 주목한 책과 저자 ... 50 | 가족의 두 얼굴 ... 51 |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가운 책 ... 52

남희근 저작선 주역계사 강의·불교 수행법 강의·금강경 강의 ... 53

바둑의 발견·인문으로 읽는 주역·주역의 발견 ... 54 | 빼직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내 아이에게 틱과 강박증이 있대요·베토벤 심리상담 보고서·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 ... 55 | 들뜬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홍순영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최숙빈·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 56 | 김교신 전집·김교신을 말한다·성서조선 영인본 CD·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 ... 57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유예된 유토피아, 공산주의·인류의 영원한 굴레, 전쟁·저속과 과속의 부조화, 페미니즘·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 ... 58

진화의 종말 ... 59 | 숫자의 탄생 ... 60 |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 61 | 미스터 풍 과학에 빠지다 ... 62 |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학·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New 과학은 흐른다 ... 63 |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달력과 권력·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 64

도쿄대 영단어 280 ... 65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Reset! 수학 시리즈 미적분·확률과 통계·지수와 로그·하수와 복소수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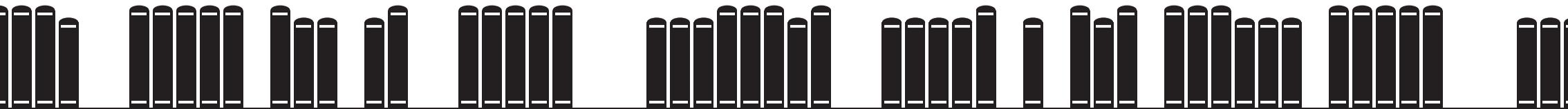
수능 수학의 지름길: 수학1·미적분과 통계 기본 ... 67 |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친절한 도형 교과서·친절한 수학 교과서 ... 68 |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한자 오디세이·한눈에 깨치는 우리 아이 처음 한자·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 69

실용

인문

과학

외국어·학습



110만 독자의 뜨거운 선택, 장하준!

“시장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선(善)이 되기도 하고 악(惡)이 되기도 한다”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사다리 건너차기』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뫼르탈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하여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장하준은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식의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보다는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장을 이룬 뒤 ‘사다리’를 건너차는 선진국의 행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자문을 하고 있는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학자 중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꼽히고 있다.

- ▶ 장하준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최고의 비평가이지만 반(反)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_옵서버](#)
- ▶ 장하준의 『사다리 건너차기』는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부자 나라는 국제 규제에 저촉되는 선에서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착취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_비정부기구 빈민구호단체 옥스팜](#)
- ▶ 장하준은 새로운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_캐나다 작가협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 정승일 ·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 이종태 지음
신국판 변형 | 424쪽 | 14,900원

장하준, 독자에게 묻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세 사람이 한국 경제 정밀 진단을 위해 다시 뭉쳤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7년 만에 거침없는 직설이 재개된 것. 세 사람은 경제 현안에 대해 애매하게 굴거나 멈칫거리는 일 없이 명쾌한 해석과 처방을 내놓는다.

대답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세 저자는 오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만신창이의 모습을 하게 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화, 금융 자본주의화를 ‘시장 개혁’ 내지는 ‘경제 민주화’라고 착각한 일단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떠들썩하게 외쳐 대는 구호인 ‘경제 민주화’는 결국 경제의 비(非)민주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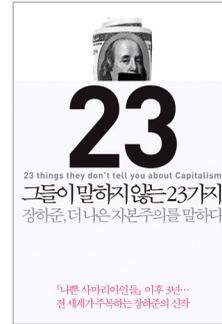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세 저자는 ‘스웨덴식 생산적 복지국가’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렸지만, 저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복돋는다.

-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주의와 일전을 벌인다. ... 다시 문제는 복지다. 가난한 사람만 골라 시혜를 주듯 지원하는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아닌,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돼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_경향신문
- ▶ 『쾌도난마 한국 경제』의 2012년판이자 확장된 복지 국가 담론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_프레시안
- ▶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좌우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독자 노선이다. _서울신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 안세민 옮김
신국판 | 368쪽 | 14,800원



2011 예스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11 인터파크 선정 최고의 책 | 2010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10 알라딘·교보·인터파크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11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1월의 읽을 만한 책
북리펀드 2011년 2월 선정도서 | 2010 책 읽는 밤 선정 올해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신국판 | 384쪽 | 14,000원



경제 문제를 말하는 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진짜 자본주의 이야기’이자 알짜배기 ‘경제 지식IN’

기업은 소유주 이익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까? 기업에 유리한 정책은 국가 경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확대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까?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史實)과 주변 사례(事例)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 준다.

영국에서는 출간 직후 아마존 경제 부문 1위에 올랐으며 이후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출간되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의 10개국에서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 ▶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교의를 23가지 명제로 압축해 하나하나 그 신화를 깨뜨린다. _한겨레
- ▶ 좌파와 우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하준의 목소리는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_중앙일보

50만 독자가 선택한 장하준의 경제학 특강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해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 준다.

- ▶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_노엄 촘스키
- ▶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절로 새롭게 만들어 준다. _조지프 스티글리츠
- ▶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경제학의 파노라마. _가디언
- ▶ 지금은 개구리가 된, 그러나 한때는 분명히 올챙이였던 선진국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_조선일보

48회 한국출판문화상 인문 교양 부문 수상 | 2007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2007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 2008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2008 예스24·알라딘·교보·인터파크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07 TV 책을 말하다 선정 올해의 책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이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신국판 | 280쪽 | 13,000원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국가의 역할』 등의 저작을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의 경제 정책 매뉴얼.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실증적인 반박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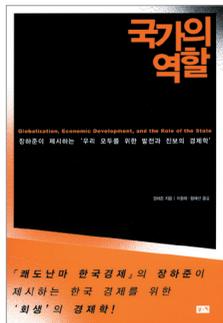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따져 볼 수 있다.

- ▶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아주 많다는 지적. _한국일보
- ▶ 장 교수가 이번 저작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개도국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_동아일보

2008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국가의 역할

장하준 지음 | 이종태·황해선 옮김
신국판 | 496쪽 | 16,000원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논박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바로 최종적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다.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를 여부는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 시장 vs 정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_조선일보
- ▶ '보이지 않는 손'보다 국가를 믿어라. _동아일보
- ▶ 신자유주의는 비과학적 이데올로기. _한겨레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 2006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06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 2006 출판편집자가 뽑은 올해의 책

래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의 대담을 이종태가 쓰다
신국판 | 239쪽 | 9,800원



경계선 없는 뜨거운 토론!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386세대 학자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 논리 및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이념 대립을 넘어, 좌우를 포함하는 다이나믹한 주장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 ▶ 오랫동안 얽힌 속이 확 풀리는 듯하다. ... 바야흐로 '무림의 고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_한겨레

46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 | 2005 경향·한겨레·중앙 선정 올해의 책
2005 교보문고·네이버 선정 올해의 책 | 2005 TV 책을 말하다 단독 방영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 형성백 옮김
신국판 | 327쪽 | 12,000원



뿔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 준 세계적인 경제 비평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고발한 경제 비평서. 역사적 사실과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실효성 등 그간 통념이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뿔달 상 수상 영광을 안은 역작이다.

- ▶ 환상적일 정도로 유용한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이 막강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적 양심을 일깨워 준다. _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2003 뿔달 상 수상 | 한국일보 선정 우리 시대의 명저 50 | 2004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2004 한겨레가 뽑은 상반기 10권의 책 | 2004 TV 책을 말하다 선정 올해의 책 | 2004 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개혁의 뗏

장하준 지음 | 신국판 | 252쪽 | 9,800원



'개혁'에 사로잡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을 반박한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 흐름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할 방법은 없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자유롭게 써나간 경제 에세이. 장하준은 현재의 우리 경제를 '개혁'이라는 '뗏'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른바 진보 세력이 과거와 절연을 위해 신자유주의자들과 야합함으로써 성장 없이 빈곤층만 양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2005 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학신입생 권장도서



지식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는

- ▶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 경제학 및 경영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석학들의 저작을 엄선하였습니다.
- ▶ 기존에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라이브러리 시리즈를 읽고 나면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1권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2권 메이저리그 경영학

3권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4권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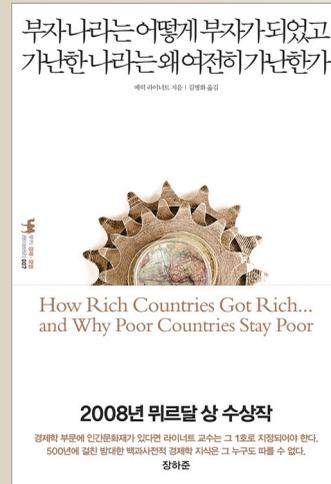
5권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6권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7권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경제·경영 라이브러리는 계속 출간됩니다.)

- ▶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해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_영국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7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이너트 지음 | 김병화 옮김
신국판 | 500쪽 | 20,000원

2008 워르달 상 수상

주류 경제학은 역사에서 무엇을 지워 버렸는가?

500년에 걸친 유럽의 방대한 경제학 지식을 망라하다

고등학교 시절 폐루에 갔다가 그곳 사람들의 빈곤에 충격을 받은 저자가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인 이 책은 주류 경제학에 의해 거의 묻혀 버렸으나 지난 500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경제학 지식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유럽은 경제 발전의 비결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럼에도 경제 발전에서 영국은 성공하고 스페인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은폐했는지, 그 결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500년 사이의 문헌학적 증언과 에콰도르, 몽골, 우간다 등 비극의 현장에 근거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 ▶ 경제학 부문에 인간문화재 제도가 있다면 에릭 라이너트 교수는 그 1호로 지정되어야 한다. 500년에 걸친 방대한 백과사전적 경제학 지식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다.

_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 ▶ 경제 정책에 관한 풍부한 지식으로 불균등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줌으로써 중요한 교훈과 함께 풍부한 읽을거리를 선사한다. _조모 크와메 순다람, UN 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 ▶ 제3세계의 빈곤을 부채질한 주류 경제학의 낙관주의를 꼬집는다. _경향신문

- ▶ 서술 밀도가 대단히 높다.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 전통에 대해 논하는 부분은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아깝다. _서울신문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6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금융의 탄생에서 현재의 세계 금융 지형까지

이찬근 지음
신국판 변형 | 528쪽 | 20,000원2011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부문 대상 수상
북리펀드 2011년 8월 선정도서

이론과 실무, 역사와 논쟁이 접목된 금융경제학 파노라마

금융 전문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의 전체 그림을 그려 준다!

다양한 영역과 분과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상을 그리기 힘든 '금융'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금융 종합 개설서. 이 책은 하나의 금융 이론이나 금융 공학이 도출되기까지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고 역사적 흐름 및 맥락을 짚어 가며 이론과 실무를 가로지르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 담론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평이하게 풀어 썼기에 입문자는 물론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회인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갇혀 있는 각 분야의 금융 종사자들에게도 금융의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되어 준다.

- ▶ 각론 위주로 발간된 기존 금융 관련 서적과 달리 금융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_매일경제
- ▶ 기본적 금융지식에서부터 상당히 고급한 개념까지, 그야말로 차곡차곡 설명해 준다. _시사IN
- ▶ 신자유주의의 영혼과 가족을 단시간에 훑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책. _프레시안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5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조지 매그너스 지음 | 홍지수 옮김 | 신국판 | 416쪽 | 18,000원

인구 고령화는 이제 국가 재정을 좌우하거나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가 되었다. 저자는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들을 살피고 물가와 자산 가격 등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검토한다.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 2011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2월의 읽을 만한 책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4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짐 스탠포드 지음 | 안세민 옮김 | 신국판 | 408쪽 | 14,000원

보통 사람을 위한, 쉽고 친절한 자본주의 경제학 입문서. 저자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3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당신의 청바지에 감춰진 세계 패션 산업과 무역 이야기

레이철 루이스 스나이더 지음 | 최지향 옮김 | 신국판 | 388쪽 | 14,000원

아제르바이잔에서 모화를 채취하는 노동자부터 캄보디아의 열악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이탈리아의 원단 제조업자와 뉴욕의 일류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패션 산업 현장에서 옷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7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책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2

메이저리그 경영학

제프 앵거스 지음 | 황희창 옮김 | 신국판 변형 | 336쪽 | 13,000원

경영 컨설턴트이자 야구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메이저리그의 풍부한 실전 사례와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의 진수를 설명한다.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서 뽑아 낸 기업 경영 비법을 통해 경영학과 야구의 재미를 한번에 맛볼 수 있다.

북리펀드 2009년 6월 선정도서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1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로버트 하일브로너·레스터 서로 지음 | 조윤수 옮김 | 신국판 | 340쪽 | 13,000원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오늘날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책은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명쾌하면서도 신랄한 답변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 500년 역사를 아우르는 두 대가의 경제학 강의가 쉽고 재밌게 펼쳐진다.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21인의

세상 고쳐 쓰기

이희수 역음 | 김종락·이경숙·이재영 지음
신국판 변형 | 364쪽 | 14,800원



전략 퍼즐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제이 B. 바니·트리시 고먼 클리포드 지음 | 홍지수 옮김
사륙판 변형 양장 | 336쪽 | 15,000원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출간한
유일한 경영소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며 '세상을 고쳐 쓰는' 사회적기업 이야기

기업의 시작과 끝은 '이윤의 극대화'다. 그러나 여기 그렇지 않은 기업과 기업가들이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다.

사회적기업은 언제나 돈보다 사람, 지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선으로 한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제조 기업 이지무브,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 진료하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친환경 로컬푸드 햄버거를 만드는 생명살림 올리, 친환경 세차업체 두레마을, 고택 숙박사업으로 전통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경북미래문화재단 등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느리지만 따뜻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가 21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의 진보, 더 나은 자본주의의 실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 보자.

- ▶ 선진국에서 이미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_중앙일보

이 책은 대우증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세 수익금 전액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금으로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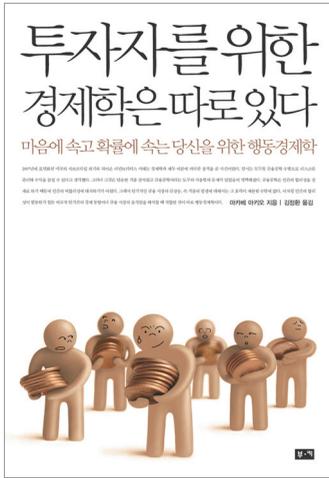
초짜 컨설턴트의 좌충우돌 경영전략 분투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출간한 유일한 경영소설!

최신 경영이론 확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출간한 경영서는 수백 권에 이른다. 하지만 그들이 출간한 소설은 단 한 권, 바로 이 책이다. MBA를 갓 따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 주인공 저스틴은 첫 업무로 석유화학 전문기업 HGS의 신기술 '플라스티웨이'의 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단순히 남성용 셔츠 시장 진입 문제로 보였던 프로젝트는 HGS 임원들을 면담하면서 복잡다단한 경영 전략 수립 과정으로 이어지고, 저스틴은 MBA에서 배운 이론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기업체와 경영대학원, 컨설팅업체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공저자들이 소설 형식을 빌려 풀어낸 본격 경영전략서다.

- ▶ 사실 MBA에서 배운 도구를 구체적인 사례에 완벽하게 적용하려면 소설만 한 게 없다. _매일경제
- ▶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점과 버려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저스틴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생생한 기업 사례를 연구하는 기분이다. _동아비즈니스리뷰
- ▶ 각 장의 '전략 퍼즐 맞추기' 질문들은 단지 소설에서 벌어진 상황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 각자가 처한 다양한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문제로 확대시켜 준다. _문화일보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따로 있다

마음에 속고 확률에 속는
당신을 위한 행동경제학

마카베 아키오 지음 | 김정환 옮김
신국판 변형 | 272쪽 | 14,800원

경제학자도, 펀드 매니저도 투자에는 실패한다?

이론이나 확률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인간의 합리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구축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 금융공학은 '거품'과 같은 금융 시장의 이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의 심리에 주목해 현실 속의 우리가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분석하는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행동경제학 입문서의 꼴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존의 입문서들에 비해 행동 재무 이론이나 통제의 환상, 인지 부조화 등 금융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파고든다.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오류, 확률을 계산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기 쉬운 주관적인 잣대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장의 주기와 행태를 더 풍부히 이해하고 투자 활동 및 재테크 전반에 걸쳐 인식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 ▶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속아 실패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책. _한국경제
- ▶ 이미 인플레이션 경제 시대로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 개인과 기업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_이코노믹리뷰
- ▶ 의사 결정과 관련한 전망 이론은 행동 재무로 확대됐고, 이런 논의를 포괄한 행동경제학이 사회 전체 경제 메커니즘의 해명을 모색하고 있다. _경향신문



결국 사장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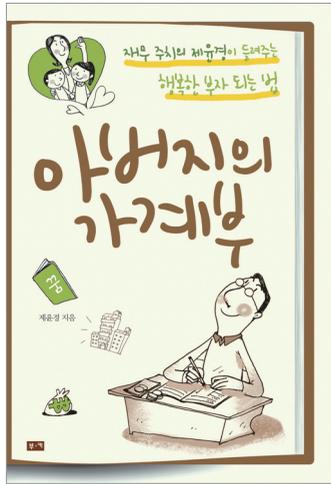
3년을 못 버티는 소기업,
15년 넘긴 홍사장의 서바이벌 시장학

홍재화 지음
신국판 변형 | 256쪽 | 13,000원

북리펀드 2011년 9월 선정도서

누구나 한 번쯤 내 사업을 꿈꾸고, 실제로 사장이 되어 좌충우돌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만나기도 한다. 저자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무역진흥공사를 거쳐 파나마 무역관에서 일했다. 누구보다 무역에 자신이 생길 즈음 과감히 사표를 쓰고 소기업 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3년을 버티기 어려운 것이 자영업계의 현실. 달랑 팩스 하나를 놓고 사업을 시작해 15년간 살아남은 홍사장이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희망을 기록하였다. 사람을 잘못 뽑아 어려웠던 경험, 인맥을 소홀히 해 큰코다친 일, 사장과 직원이 무엇을 공유하고 어디까지 거리를 뒀어야 하는지 등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소기업만의 생생한 경영 이야기와 밑줄 긋고 싶은 노하우가 담겨 있다.

- ▶ 저자가 제시하는 대처 방안은 명쾌하다. 사무실도 없이 팩스 한 대로 밀림을 헤쳐 온 저자의 경험과 여유 생생하게 다가온다. _한국일보
- ▶ 예비 사장들에게는 교훈을, 기존 사장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_전용욱, 우송대 부총장
- ▶ 대기업 경영과 소기업 경영은 다르다. 그런데 시중에는 대기업 경영에 관한 책만 있다. 나는 이런 책이 정말 필요했다. _최봉식, (주)제일씨엔피 사장
- ▶ 평소 선배들의 경험을 자료화하여 후배 창업자들에게 알려 주어 실패를 줄이고 사업의 정착을 앞당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_홍성국, 중소기업청 수출상담역



아버지의 가계부

재무 주치의 제윤경이 들려주는
행복한 부자 되는 법

제윤경 지음
사륙판 양장 | 22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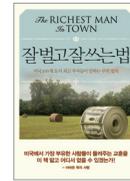
온 가족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가정경제 교과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대박을 좇는 재테크가 아니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보여 준다. 날로 팍팍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가정 경제를 꾸려 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이 책은 2007년 처음 출간된 이래, 수많은 보통 사람에게 따뜻한 위안과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2012년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바뀐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부동산·펀드 열풍 이후 벌어진 상황, 불안에서 벗어나는 노후 설계법, 대형 마트식 소비의 개선, 저금리 시대의 저축 요령 등 새롭게 알찬 정보들을 더했다.

- ▶ 부자를 쫓다가 허탈해하고 지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로 사는 길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책, 읽다가도 몇 번이고 가슴에 보듬게 된다. _이코노미21
- ▶ 네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정경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조연한다. _한겨레
- ▶ 무계획적 따라 하기식 재테크에서 벗어나 가족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바로 가계부에 있다. _매일경제
- ▶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사람은 재테크라면 고개부터 돌리고 보는 이들이다. 정신이 번뜩들 것이다. _문화일보



잘 벌고 잘 쓰는 법

미국 100개 도시 최고 부자들이 말하는 부의 법칙

랜들 존스 지음 | 강주현 옮김 | 신국판 변형 | 320쪽 | 14,800원

2년간의 조사를 통해 미국 100개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최고 부자'들을 찾아 직접 인터뷰했다. 최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일구었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보통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 등 현대 미국 부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

조용준 지음 | 신국판 변형 | 288쪽 | 14,000원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를 한국의 투자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투자 지침을 담았다. 단순히 버핏식 투자 방법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과정까지 제시한다. 또 한국의 내로라하는 가치투자자 7명의 인터뷰와 저자가 추천하는 장기투자 유망주 10선을 함께 실었다.



한국의 보노보들 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안치용 외 지음 | 신국판 | 408쪽 | 14,000원

천 원짜리 웰빙 식당, 동네 사랑방 같은 병원... 사회적기업은 이웃과 환경, 문화와 고용, 참살이와 장애인을 생각한다. 칩펜지가 무한 경쟁을 좇는다면 보노보는 상생을 추구한다. 이 책은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36곳을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 낸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북리펀드 2010년 6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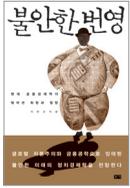


보노보 혁명 제4섹터,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유병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252쪽 | 12,000원

어떤 이는 칩펜지처럼 폭력과 탐욕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보노보들이 많다. 더욱이 이윤 극대화를 최선으로 생각하던 기업가들이 보노보가 되어 비영 끝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보노보 혁명의 현장을 담았다.

2008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불안한 번영 현대 금융경제학이 빚어낸 희망과 절망

이찬근 지음 | 신국판 | 384쪽 | 14,000원

세계 경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현실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 2009 시사IN 선정 올해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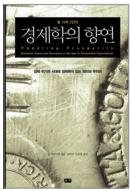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외 지음 | 신국판 | 356쪽 | 12,000원

보수와 진보가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입문서.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진보적' 시각이 어떤 접근법과 해결책을 갖는지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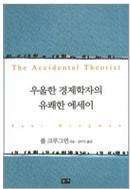
2006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 2004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이달의 책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이수 외 옮김 | 신국판 | 351쪽 | 9,000원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의 대표작이자 경제학의 고전. 경제 사상과 정치권력의 야합과 밀월, 갈등과 결별의 과정을 파고 들으로써 경제학을 이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이수 옮김 | 신국판 | 279쪽 | 9,800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와 어설론 이론가들이 고집하는 상식과 통념의 허구성을 폭로한 고급 경제 에세이.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다양한 경제 현안 및 이를 둘러싼 어설론 담론들에 대해 독창적이고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꼬집는다.



자기 조직의 경제

폴 크루그먼 지음 | 박정태 옮김 | 신국판 | 223쪽 | 12,000원

도시는 왜 강남과 강북의 경우처럼 분리되어 형성되는가? 기술과 산업이 한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황은 왜 일어나며 어떻게 호황으로 전환되는가? 무질서의 카오스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질서로 회귀하는 경제의 자기 조직화 원리를 규명한 크루그먼의 역저!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김한원·정진영 엮음 | 신국판 양장 | 512쪽 | 25,000원

국내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학자 및 경제학자 13인이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짚어 냈다. 이론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보다는 상세하고 체계적인 해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자유주의 사상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006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이달의 책 | 2006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경제사 오디세이

최영순 지음 | 신국판 | 355쪽 | 12,000원

'일반인을 위한' 경제사 책. 거시적으로는 인류 역사 오천 년에 걸친 자본주의화의 전 과정을, 미시적으로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경제와 생활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이론 경제학이 아닌 우리 삶과 맞물려 돌아가는 실물 경제학을 체득하게 한다.

2004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필재·유승렬 지음 | 신국판 변형 | 352쪽 | 14,000원

라이프스타일에서 경영 철학까지 현직 CEO 100명의 모든 것을 밝힌다. 경영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설문과 심층적 분석은 한국의 대표적 CEO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보여 준다.

북리펀드 2010년 4월 선정도서



좋은 인재 나쁜 인재

정민정 지음 | 신국판 | 311쪽 | 12,000원

한국의 대표 CEO 55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져 낸 생생한 현장 인재론. 좋은 인재의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직장인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반면교사와 역사사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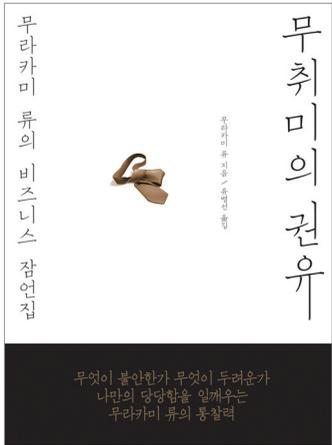


한국의 부농들

박학용·차봉현 지음 | 신국판 | 256쪽 | 12,000원

과연 우리 농업에 미래는 있는가? 저자들은 만 2년 이상 한국의 농업 현장을 발로 뛰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섰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농업 분야 최고경영자들의 성공 비결을 차분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2006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무침미의 권유

무라카미 류의 비즈니스 잠언집

무라카미 류 지음 | 유병선 옮김
사륙판 변형 양장 | 176쪽 | 12,000원

직장인의 일상적인 고민에 무라카미 류가 던지는 정문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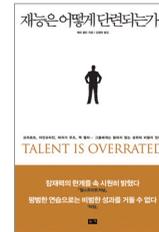
메모에서 세계화까지, 통찰력 가득한 38가지 조언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류의 비즈니스 잠언집. 소설가 무라카미 류와는 전혀 다른, 지혜와 통찰력 가득한 무라카미 류를 발견할 수 있다. 비즈니스맨이면 누구나 안고 사는 고민들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끈다. 협상, 어학, 인맥, 접대, 기획, 글쓰기, 전직 등 구체적인 업무에서 세계화, 목표, 효율, 실패, 곤경, 정열 등 폭넓고 상황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남의 조언만 좇지 말고 사태의 본질을 짚어 일과 인생의 주체로 살라”고 조언한다. 후배 직장인은 선배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따끔한 충고를, 선배 직장인은 일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 무라카미 류다운 책이다. 적나라하다. _아시아경제
- ▶ 고민들에 대처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고민이 시작된 본질을 이야기한다. _내일신문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제프 콜빈 지음 | 김경희 옮김
신국판 변형 | 304쪽 | 14,000원



Stopping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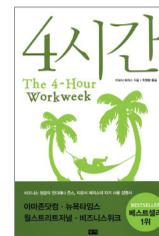
'잇걸'에서 '빚걸'까지
쇼핑 중독 치료법

에이프릴 레인 벤스 지음 | 홍성영 옮김
신국판 변형 | 424쪽 | 14,800원



4시간

티모시 페리스 지음 | 최원형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 | 412쪽 | 13,800원



아인슈타인, 타이거 우즈, 잭 웰치...
그들에게는 남다른 성취의 비밀이 있다!

우리는 모차르트가 놀라운 음악 재능을 지녔고, 워런 버핏이 뛰어난 투자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성과의 비밀은 무엇인가? 저자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답한다. 이 연습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한다. 이 책은 자녀 교육과 기업 인재 육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연습법'을 제시한다.

▶ 잠재력의 한계를 속 시원히 밝혔다. _월스트리트저널

북리펀드 2010년 11월 선정도서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
"혹시 나도 쇼핑 중독 아닐까?"

강박적인 쇼핑 장애 치료의 권위자이자 심리학자가 쇼핑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쇼핑 중독 테라피다. 이 책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쇼핑에 대한 욕구를 어떤 식으로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쇼핑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의 심리 분석, 과도한 쇼핑 습관을 멈출 수 있는 방법과 각종 전략, 팁, 비법 등이 담겨 있다.

- ▶ 오히려 덜 가졌을 때의 행복을 보여 준다. _중앙일보
- ▶ 쇼핑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_동아일보

북리펀드 2011년 5월 선정도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계발은 이제 치워라!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도 한 해에 4만 달러밖에 못 받은 사내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 강좌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한마디로 웹 2.0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링 필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 주문이 아닌, 실천의 '시크릿'. 역시 행동의 힘은 위대하다. _동아일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위크 베스트셀러 1위
북리펀드 2009년 1월 선정도서



성공의 축지법

송치복 지음 | 사륙판 | 216쪽 | 10,000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송치복이 말하는 성공의 비밀. ‘천지인’ ‘음양철법’ 등 우리 사상을 바탕으로 광고를 만들어 온 이답게 성공의 본질을 되물어 독자들에게 하여금 생각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한다.



그녀들은 어떻게 CEO가 되었나?

정민정 지음 | 신국판 | 279쪽 | 9,000원

회사원으로, 전업주부로, 학생으로 살던 평범한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잘나가는 CEO가 되었을까?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몇백 억대의 연 매출을 올리는, 잘나가는 중소기업의 여성 CEO 14인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준다.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성수선 지음 | 신국판 | 280쪽 | 11,000원

삼성정밀화학 여성 해외영업 담당 1호 성수선이 글로벌 마켓 현장을 누비며 견져 낸 해외영업 실전 매뉴얼, 글로벌 영업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한편 바이어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 테크닉의 사례도 귀뽕해 준다.



면접의 정석

서형준 지음 |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이 책은 우리가 면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접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저자가 대기업, 공기업, 고시, 공무원 시험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일과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응시자가 진정 갖춰야 할 게 무엇인지 세심하게 짚어 준다.



마법의 세일즈 토크

요시노 마유미 지음 | 김정환 옮김 | 신국판 변형 | 192쪽 | 9,500원

연 매출 20억 엔의 실적을 올리는 세일즈맨 요시노 마유미가 전하는 마법의 세일즈 토크 비법. 저자는 최고의 영업 사원은 ‘소질’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어떤 분야라도 바로 실천에 적용해 활용할 수 있는 영업 매뉴얼을 제시한다.



봉하일기

그곳에 가면 노무현이 있다

노무현 외 지음
신국판 변형 | 320쪽 | 14,800원

노무현 대통령에게 봉하는 ‘다시 찾은 봄날’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귀향한 이후 모습을 담았다. 비서진이 작성한 노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일기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쓴 글, 방문객들과 나눈 인사말 등 32편의 글로 구성된 이 책에는 ‘자연인 노무현’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방문객들을 위해 많게는 하루에 열한 번이나 나와서 인사하던 마음 약한 노무현, 자전거 뒤에 수레를 달아 손녀를 태우고 산책을 다니던 할아버지 노무현, 목장갑 끼고 장화 신고 쓰레기를 손수 치우던 일꾼 노무현, 봉하 들판을 친환경 농업 단지로 만들어 낸 농부 노무현...

그렇다고 추억만을 되새기는 회고록은 아니다. 이 책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미래를 이야기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갔지만 그의 뜻을 잇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봉하일기를 써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봉하는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귀향 후 기록인 『봉하일기』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봉하로 귀향을 했으며, 그분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생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해 준다.

_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 노 전 대통령이 봉하에 심어 놓은 씨앗은 그가 떠난 뒤에도 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여전히 우리는 노무현을 만날 수 있다. _한겨레21

▶ 어떤 대목에선 대통령 노무현이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대목에선 농부 노무현이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민 노무현도 『봉하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_아시아경제



오! 당신들의 나라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세상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296쪽 | 13,800원

북리펀드 2012년 3월 선정도서

유쾌한 독설가 에런라이크, 탐욕에 눈먼 1%에 화살을 날리다!

『공정의 배신』으로 ‘공정 사회’의 진실을 고발한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이번에는 ‘1% 사회’를 정조준한다. 실적을 들먹이며 직원을 마구 자르더니, 회사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 전별금은 챙기는 알뜰한 대기업 CEO, ‘경제력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며 가난한 아이들마저 내치는 공평한 병원과 의사, 보험료는 점점 더 올리고 보상은 점점 더 줄이는 이상한 보험사, 선거 때만 되면 불법 체류, 동성애, 낙태 같은 똑같은 레퍼토리를 들고 나와 판 뒤집는 한결같은 보수주의자.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부를 독식한 이들 1%의 ‘꼼수’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꼬집는다. 웃다가 울다가 끝내 가슴이 서늘해지는 책!

- ▶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눈물겨운 현실을 웃음과 함께 보여 준다. 저자의 열정과 연민, 위트가 글을 생생하고 시의적절하게 만든다. _퍼블리셔스 위클리
- ▶ 도발적이면서도 웃기고 동시에 분노하게 만든다. _커커스 리뷰
- ▶ 조너선 스위프트 같은 풍자. _라이브러리 저널
- ▶ 날카로운 분석과 매력적인 글쓰기. 가진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을 이용해 어떻게 중산층과 빈민층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더 격차를 벌려 가는지를 분석한다. _북리스트
- ▶ 1%를 위해 99%가 희생하도록 재편되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를 피부에 와 닿는 이슈들을 통해 풍자한다. 미국 얘기라는데 한국과 똑같다. _씨네21



공정의 배신

공정적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304쪽 | 13,800원

2011 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책
2011 프레시안 선정 올해의 책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위기를 초래하고 위기 속에 자라나는 ‘공정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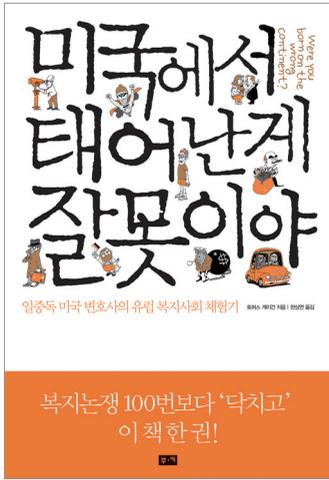
미국을 감염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된 ‘공정주의’의 실체를 파헤치다!

유쾌한 사회 비평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자본주의와 철저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쳤다. 출간 직후 미국 아마존 사회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독자들 사이에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공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면만 보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공정주의의 메시지가 불편한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저마다 자신의 챗바퀴에만 열중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유방암 경험에서 시작해 넘쳐나는 자기계발서의 메시지, 초대형 교회의 모순적인 설교, 동기 유발 강사들과 기업들의 커넥션,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차근차근 짚어 가며 ‘공정주의’의 실체를 전하는 저자의 시각은 날카로우면서도 시종 유쾌하고 재치 있다.

- ▶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신뢰하는 모든 분께 일독을 권한다. _한명숙, 전 국무총리
- ▶ 이 저자의 다른 책들을 다 찾아 읽고 싶다. _황인숙 시인
- ▶ 저자는 긍정적 사고의 거짓과학과 거짓지성의 토대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허황된 것임을 폭로했다. 이 책이야말로 마음을 열고 이 사회를 읽어 냈다. _마이클 셔머,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저자
- ▶ 누군가 이런 책을 써 주길 평생 기다렸다! _뉴욕타임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토머스 게이건 지음 | 한상연 옮김
신국판 | 392쪽 | 15,000원

2011 프레시안 선정 올해의 책
북리펀드 2012년 1월 선정도서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학교수업이 즐거워지는 9가지 인지과학 처방

대니얼 T. 윌링햄 지음 | 문희경 옮김
신국판 변형 | 304쪽 | 16,000원

북리펀드 2011년 10월 선정도서

무한경쟁 미국 vs 여유만만 유럽, 어디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맥주처럼 톡 쓰고 소시지처럼 쫄득한 유럽 복지사회 탐험기!

세계 최강의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미국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무한 경쟁 사회임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한편,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모두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독일인의 상황을 생생하게 비교하여 보여 준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는 두 개의 상반된 세계, 미국과 유럽을 '실생활'과 '삶'으로 비교하고 있어 제도나 시스템, 이를 뒷받침할 세원의 문제 등으로 골치 아픈 독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지 판단하는 가능자가 될 것이다.

- ▶ 오로지 미국만을 대안으로 삼으며, 경쟁을 위해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고, 금융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미국식 논리가 판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책은 죽비처럼 우리 의식을 내리친다. _한겨레
- ▶ 게이건은 뛰어난 사회평론가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을 얼마나 모르는지 알깨워 준다. 재미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 현실에 대해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_바버라 에런라이크, 『공정의 배신』 저자
- ▶ 쉽고 재밌고 솔직하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치경제학 책. _시카고 트리뷴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수업, 인지과학자에게 묻다

누구나 궁금한 '학생과 수업, 그리고 성적'에 대한 9문 9답!

왜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할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왜 학교 공부는 어렵고 괴로울까? 이 책은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문을 풀어 가며, 더불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즐거운 수업 비법 9가지를 알려 준다.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시험에 꼭 필요한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반복은 유용한 학습 방법인가? 학생들이 과학자나 수학자, 역사가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서 학생별 맞춤 수업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 세계적인 인지과학자 대니얼 윌링햄이 풍부한 교육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답한다. 학부모들에게는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 기술을 찾거나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 교사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모든 선생님들의 가방 속에 들어 있어야 할 고전이다. _E. D. 허쉬 주니어, 버지니아 대학 명예교수
- ▶ 저자는 지식 교육의 공간인 동시에 정서적·사회적 공간인 교실의 특징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다. _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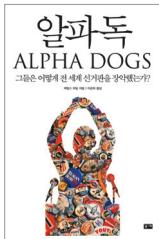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마틴 자크 지음 | 안세민 옮김
신국판 | 620쪽 | 25,000원



알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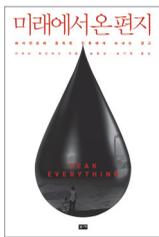
제임스 하딩 지음 | 이순희 옮김
신국판 | 351쪽 | 16,000원



미래에서 온 편지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송광선·송기원 옮김
신국판 | 276쪽 | 14,000원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국은 우리가 아는 세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서구 세계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화두로 전개되는 이 책은 중국의 미래와 그에 따라 변화될 세계를 올바르게 조망하려면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 논의들이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며, 문명과 과거 역사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의 특성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한다.

▶ 중국이란 거인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_조선일보

북리펀드 2011년 1월 선정도서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 선거판을 장악했는가?

전 세계 정치 문화를 바꾼 ‘현대의 마키아벨리들’ 이야기

미국 정치 컨설팅 업계의 선두 주자 ‘쇼어 밀러 그룹’의 행적을 쫓아 세계 선거전의 이면을 파헤친 책. 쇼어 밀러 그룹은 1970년대부터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의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반면 정치인을 상품으로, 유권자를 소비자라 전락시켰다. 이 책은 쇼어 밀러 그룹을 통해 정치 문화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한 한 편의 생생한 논픽션 드라마이다.

▶ 솔직하고 통찰력이 배어나다. _이코노미스트

북리펀드 2010년 8월 선정도서

앞을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에피메테우스의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석유정점 문제뿐 아니라 유기능업에서 공업디자인, 영화에서 언어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심오한 예측이 조합된 도발적 생각들을 풀어 놓고 있다. 저자는 현대 문명의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종말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인구 증가, 서식처 파괴, 자원의 고갈 등 제한 요소들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 고통스럽겠지만 모두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버리고 ‘더 조금, 더 느리게, 더 작게’로 개종을 서두를 때다. _경향신문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북리펀드 2010년 7월 선정도서



한국 외교 24시 YS에서 MB까지 외교 현장 리포트

이승철 지음 | 신국판 변형 | 332쪽 | 16,000원

20년 동안 우리 외교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점과 고질병을 정리했다. 구호만 요란할 뿐 자주와 실리 어느 한쪽도 챙기지 못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위한 용비어천가용으로, 때로는 여론 달래기용으로 성과를 포장해 온 한국 외교를 마치 현장을 증계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일화들을 통해 신랄하게 고발한다.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좋은 학교’를 향한 1년 6개월의 분투기

후지하라 가즈히로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44쪽 | 12,000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공교육의 부활은 과연 가능할까? 2003년 도쿄 도내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교장으로 취임한 후지하라 교장이 와다 중학교 개혁에 뛰어든 처음 1년 6개월의 생생한 기록을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고자 하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작은 정부론

정정길 외 지음 | 신국판 양장 | 320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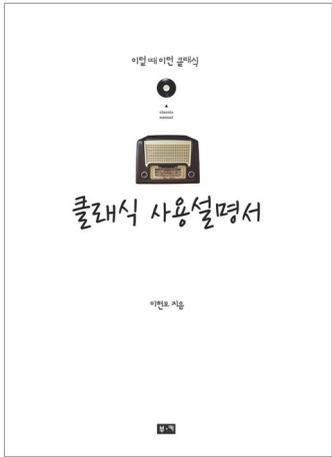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역음 | 신국판 양장 | 360쪽 | 20,000원

중국의 독특한 자생적 제도와 중국모델의 전망과 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모델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중국모델론’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기존 패권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추종할 만하다는 측면에서 본 신조어다.



클래식 사용설명서

이럴 때 이런 클래식

이현모 지음
신국판 변형 | 280쪽 | 13,000원

고급한 클래식?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자! 기분과 상황에 따라 골라 듣는 클래식 사용법

클래식 입문자는 바로크 음악부터 들어야 할까? 추천 명반은 내게도 명반일까? 클래식을 연주회장에서만 듣는 어렵고 고급한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클래식에 고전음악 감상의 답이 있다. 더욱이 클래식의 넓은 바다는 우리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 『클래식 사용설명서』는 피곤할 때, 숙면이 필요할 때, 하루를 열 때, 즐겁게 식사할 때 등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듣는 맞춤 클래식 해설서다.

작곡가들은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서 건져 올린 기쁨과 슬픔을 반영해, 그리고 수면곡이나 식탁음악처럼 특정한 필요에서 곡을 지었다. 감상자는 그러한 배경과 목적에 맞춰 곡을 들으면 된다. 작곡가의 마음속 노래가 내 마음속 노래와 만나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다양한 마음 상태와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클래식을 만나자.

- ▶ 클래식은 연주회장에서만 듣는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끈다. _매일경제
- ▶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음악사에 남는 명곡을 자신의 상태에 맞게 들어서 심신을 건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_문화일보



일상 활용 긍정 사전

장 피에르 마뉴 · 뤽 테시에르 도르피유 지음 | 이세진 옮김
사륙판 | 312쪽 | 12,000원

평소 쓰는 단어가 내 기분과 생각을 바꾼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다짐하는 당신 결의 심리코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은 물론, 수시로 결심하고 다짐한다. 하지만 대개 작심삼일로 그친다. 우리에게 이로운 습관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일상 활용 긍정 사전』은 낱말을 모은 것이지만 사전이 아니다. 일견 명언 모음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사람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요법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 코칭 및 자기계발 기법에 따라 세심하게 정리된 것이다. 곁에 두고 읽다 보면 어느새 다양한 코칭 기법, 즉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공감하며 듣는 기술, 시각화, 의식적 자기암시, 현재를 온전히 살기, '어떻게?' 라는 물음 활용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차츰 긍정 에너지를 키워 가게 될 것이다. 그저 모든 게 다 잘되길 바라는 긍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회복을 통해 자기 자신과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행복한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도와준다.

- ▶ 늘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는 잠재 능력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_매일신문
- ▶ 국어사전이 뜻을 풀어 준다면, 긍정 사전은 마음을 풀어 준다. _북데일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읽는 이야기

푸르메 책꽃이

푸르메 책꽃이는 재활전문병원 및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푸르메재단과 도서출판 부키가 함께 펴내는 시리즈입니다. 2009년 9월 증권전문가 최중석 씨가 푸르메재단에 기부한 출판기금을 씨앗으로 만들어집니다. 후원자의 소중한 기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알찬 정보를 주고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따뜻한 책들을 꾸준히 펴내겠습니다.

푸르메 책꽃이 4

완벽한 세상에 맞선 두 엄마의 명랑 분투기

조금 달라도 괜찮아

지나 갤러거 · 퍼트리샤 칸조이언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조금 다른’ 모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양극성장애(조울증)와 아스퍼거증후군(자폐증) 딸을 키우는 두 엄마가 완벽함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아이의 부모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자녀의 장애 관정으로 인한 슬픔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깨는 ‘불완전 운동’을 펴 나간다. 그와 함께 아이의 장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과정이 약간의 눈물과 넘치는 웃음 속에 펼쳐진다.

장애의 초기 징후, 학교 및 교사와 관계 맺기, 아이와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법 등 장애아를 키우면서 부딪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 내가 다른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은 이제 되돌려 준다는 말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_가수 김태원

푸르메 책꽃이 3

숫버스

조너선 무니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400쪽 | 13,500원



특수학교 버스, 미국을 횡단하다

읽기장애를 극복하고 명문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저자가 숫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비정상’ 딱지가 붙은 사람들을 만난다.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다. 학습장애 소년, 여자가 되고 싶은 어부 화가, 시청각 중복장애 소녀, 다운증후군 처녀 등을 만나면서 지은이는 ‘과연 사람들이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남과 다르나,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북리펀드 2011년 4월 선정도서

푸르메 책꽃이 2

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 자녀 평생 설계

페기 루오건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304쪽 | 14,000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부모가 병이나 사고로 장애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자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서. 지은이는 중증복합장애인인 아들의 성년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및 주거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친구, 변호사, 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켜 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법, 유언장 작성 및 유산 신탁에 이르기까지 장애 자녀의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준다.

푸르메 책꽃이 1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이승복 · 김세진 · 이상목 외 지음
신국판 변형 | 272쪽 | 11,000원



장애를 이겨 낸 24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 재활의사가 된 ‘슈퍼맨’ 이승복 박사, 올림픽을 목표로 새벽부터 물살을 가르느 로봇다리 세진 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 서울대 이상목 교수, 세계 4대 극한 마라톤을 모두 완주한 시각장애 마라토너 송경태 씨 등 장애를 딛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24명의 이야기와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들은 장애를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 나갔다. 오히려 장애 ‘덕분’에 꿈과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있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전 세계 SF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롤러코스터처럼 질주하는 상상력과 거대한 스케일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영화화 결정!

핵전쟁으로 추정되는 '60분 전쟁'은 문명을 파괴하고 지구에 거대한 지질학적 변동을 초래했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진화론'을 받아들인다. 도시진화론은 '견인 도시', 즉 거대한 바퀴와 모터에 의지해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고 강한 도시가 약한 도시를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일종의 '약육강식' 시스템. 이에 따라 온갖 견인 도시가 만들어져 지구를 배회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지구가 다시 안정된 후에도 '견인 도시주의자'들은 도시진화론을 맹신하며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견인 도시 시스템이 지구를 파괴한다고 믿는 '반 견인 도시주의자'들이 연맹을 조직해 그들과 대립하는데...

- ▶ 필립 리브는 가히 SF 어드벤처계의 디킨스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가디언**
- ▶ 스릴러물, 성장 소설 그리고 사회 소설로도 읽히는 다양한 얼굴의 SF다.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긴박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심리 묘사가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 2003 BBC 블루피터북 선정 올해의 책
2004 웹버 카운티 선정 '꼭 읽어야 할 SF 걸작'
영국서점연합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2005 최고의 장르소설'
2007 일본 SF대상 성운상(星雲賞) 해외장편부문 상

견인 도시 연대기 4

황혼의 들판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656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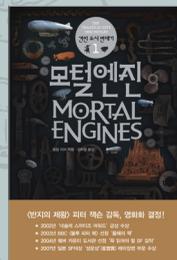


TE 1000년, 움직이는 도시들이 온다!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완결편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영화화 결정!

지구 종말 이후 벌어지는 초특급 판타지 SF 어드벤처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완결편!

그런 스톱의 공격을 받고 추락한 공중 저택 클라우드 나인에서 탈출한 톱과 렌, 그리고 사막으로 떨어진 헤스터와 스톱커 슈라이크의 6개월 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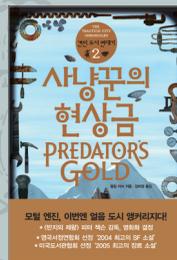
그런 스톱의 총사령관 나가의 평화 정책으로 세계는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가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전투 도시 무르나우로 속속 모여드는 도시들의 움직임 또한 매우 수상쩍다. 지구는 또 한 번 대규모 전쟁과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견인 도시 연대기 1 모터엔진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36쪽 | 12,000원

내장 갑판엔 하층 계급과 범죄자가 살고 상층 갑판엔 고위직이 사는 철정한 계급 사회 런던. 역사가자 길드의 견습생이자 열다섯 살의 고아 소년 톱은 어느 날 자신의 우상이자 길드 회장인 테테우스를 돕다가 사건에 휘말려 일그러진 얼굴의 소녀 헤스터와 함께 런던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



견인 도시 연대기 2 사냥꾼의 현상금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48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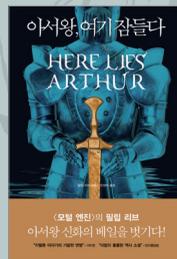
견인 도시 런던이 '반 견인 도시' 세력을 무를 풀리려다 멸망하고 약 2년 후, 대과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톱과 헤스터는 '앵커리지'라는 썰매 도시에 도착한다. 톱이 아름다운 여왕 프레이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자 헤스터는 사냥꾼 도시 아크에인절로 가서 앵커리지의 소제를 밀고하는데...



견인 도시 연대기 3 악마의 무기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64쪽 | 12,000원

결혼해 딸까지 둔 톱과 헤스터. 어느 날 기생 해적들이 가공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다는 '틴 북'을 찾기 위해 앵커리지로 숨어든다. 틴 북과 함께 납치된 딸을 찾아 나선 톱과 헤스터, 틴 북을 탐내는 노예 상인 슈킨과 시장 페니로얄, 그런 스톱의 사령관 팽, 헤스터를 찾아다니는 슈라이크의 숨 가쁜 모험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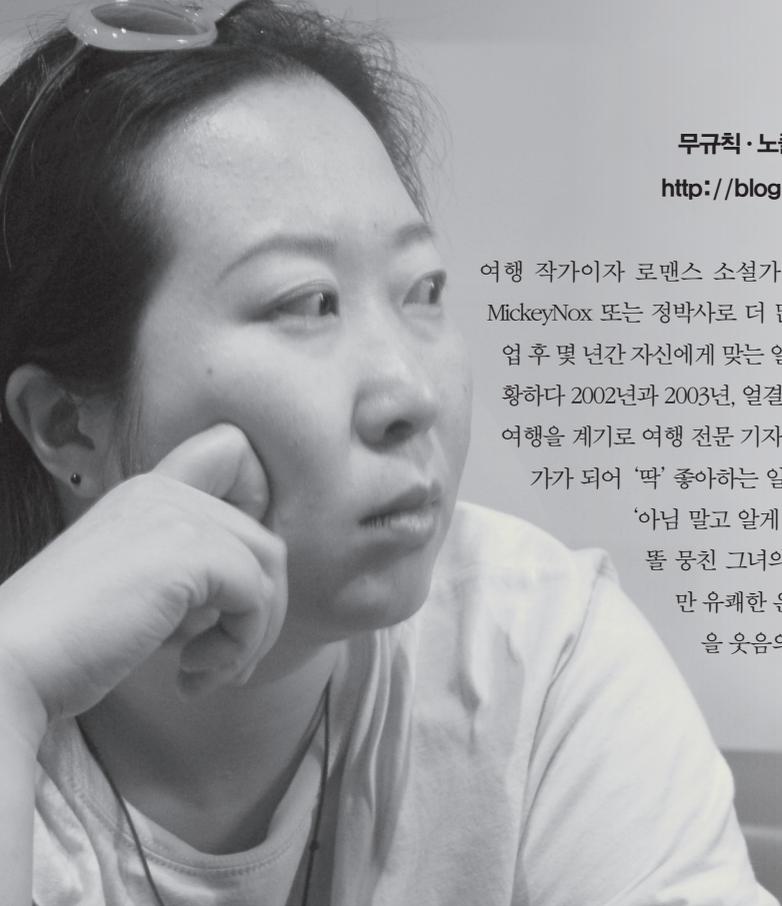
필립 리브의 역사 소설

아서왕, 여기 잠들다

필립 리브 지음 | 오정아 옮김 | 신국판 변형 | 383쪽 | 12,000원

서기 500년경, 브리튼 남서부의 노예 소녀 그위나는 아서 부대의 습격을 피해 달아나다 마르딘에게 구출된다. 마르딘은 그위나를 이용해 '호수의 여인'이 아서에게 명검 '칼리번'을 건네준 것처럼 꾸미는데...

2007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동상 수상
2008 카네기 메달 수상 | 북리펀드 2010년 11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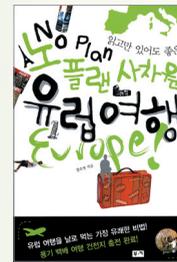


무규칙·노플랜 여행자 정숙영
<http://blog.naver.com/mickeynox>

여행 작가이자 로맨스 소설가인 정숙영은 인터넷에선 MickeyNox 또는 정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해 심각하게 방황하다 2002년과 2003년, 열결에 떠난 두 번의 유럽 배낭 여행을 계기로 여행 전문 기자가 되었고, 지금은 여행 작가가 되어 '딱'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며 살고 있다. '아님 말고 알게 뭐람'의 모험 정신으로 뚝뚝 뚫은 그녀의 여행 에세이는 자잘하지만 유쾌한 온갖 실수와 삽질로 독자들의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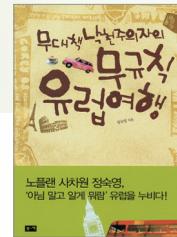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

정숙영 지음
 신국판 변형 | 407쪽 | 12,000원



무대책 낙천주의자의 무규칙 유럽 여행

정숙영 지음
 신국판 변형 | 312쪽 | 12,000원



유럽 여행을 날로 먹는 가장 유쾌한 비법!

로맨스 소설 작가이자 만지 관광청 여행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숙영의 두 차례에 걸친 유럽 여행기. 초보 배낭여행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삽질'과 '실수'가 고스란히 들어 있어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유머로 버무려진 저자의 유쾌한 입담을 따라가다 보면 '반면교사'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 필자가 몸으로 체험했던 '삽질'과 '무대보'는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럽 여행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_한겨레

이방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딱 동네 구경꾼처럼 런던과 파리, 로마를 어슬렁거린다!

2006년 출간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플랜 사차원 유럽 여행』의 저자 정숙영 씨의 두 번째 유럽 여행 에세이. 2002년과 2003년의 유럽 여행 이후 만 3년 만에 필자가 다시 찾은 유럽,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런던과 파리, 로마 일대의 가을과 겨울 여행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필자의 모습,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머와 필력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사바이 인도차이나

어느 글쟁이의 생계형 배낭여행

정숙영 지음
 신국판 변형 | 444쪽 | 14,000원



글쟁이의 여름 낭만? 좌충우돌 생계형 배낭여행! 서른다섯, 이국땅에서 일과 행복을 묻다

정숙영의 인도차이나 여행기. 여행 이야기지만 관광지나 휴양지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놀며 일하기' 위해 번역 일감을 들고 오지에 가까운 마을을 찾아간 '생계형 배낭여행'이기 때문이다. 히피들의 느긋한 에너지가 가득한 태국 빠이, 저녁 6시면 칠곡 같은 어둠에 묻히는 라오스 씨판돈, 로컬 버스 속에서 현지인들의 구경거리가 된 캄보디아 라파나끼리 등 기대를 품었던 글쟁이의 여름 낭만 대신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 덧없이 떠난 인도차이나 배낭여행... 덧없이 편한 마음을 얻다.

_조선일보

북리펀드 2011년 8월 선정도서

엄마와 두 딸의 발칙한 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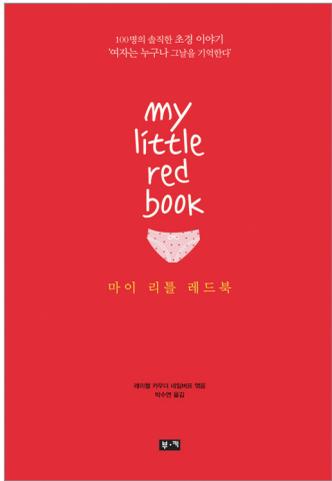
정숙영 지음
 신국판 변형 | 240쪽 | 9,000원



무심한 모녀에서 다정한 친구로, 엄마와 두 딸의 티격태격 데이트 프로젝트!

무덤덤하고 때로 지겹기도 한 시큰둥한 관계의 엄마와 두 딸이 '어쩌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집 밖에서 만나 세계 음식을 먹고, 영화나 공연을 보고, 쇼핑과 산책을 하며 티격태격 데이트하는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그린 에세이. 가족으로 묶였을 뿐 성격도 취향도 입맛도 판이하게 다른 세 모녀가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서로의 개성과 서로 간의 거리를 인정하며 성숙해지는 성장기이기도 하다.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마이 리틀 레드북

100명의 솔직한 초경 이야기
‘여자는 누구나 그날을 기억한다’

레이첼 카우더 네일버프 지음 | 박수연 옮김
사륙판 | 256쪽 | 12,000원

배꼽 빠지게 웃기고 찡했던 초경의 순간 모든 여성에게 건네는 유쾌하고 따뜻한 위로!

예일대 학생인 저자가 자신의 초경 해프닝을 토대로 주변의 경험담을 탐문해 엮은 100명의 초경 이야기. 10대 소녀에서 100세 할머니까지, 미국 뉴욕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까지, 100여 명의 여성이 자신의 초경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맥 캐봇, 영화 <사랑이 지나간 자리>의 원작자 재클린 미처드, 『호밀밭 파수꾼을 떠나며』의 조이스 메이너드 같은 유명 작가들의 솔직하고 유쾌한 고백도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부모님과 관계, 문화적 정체성, 난처했던 경험 등을 통해 차별과 무지를 타파하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엄마와 딸,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읽어도 손색이 없을 성교육서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 ▶ 매혹적이고 풋풋한 에세이 모음집. 딸에게 사 주고 싶은 책. _시카고 트리뷴
- ▶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다. _뉴욕 타임스
- ▶ 가슴이 뵈다. 이 책을 만난 이들이 나눠 가질 위대하고 미스터리한 해방의 기쁨을 확신하기에. _목서정, 『아성의 사랑학』 『뻗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 저자

레이스 뜨는 여자

파스칼 레네 지음 | 이재형 옮김
사륙판 | 192쪽 | 9,800원



과레스키 가족일기

까칠한 가족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김운찬 옮김
사륙판 | 408쪽 | 9,800원



과레스키 가족일기

까칠한 가정부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김운찬 옮김
사륙판 | 352쪽 | 9,800원



문학이 씨줄로, 철학과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이 날줄로 얽혀 있는 프랑스 소설의 진수. 공쿠르 수상작일 뿐 아니라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 <레이스 뜨는 여인>의 원작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만 지금까지 250만 부가 넘게 나갔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2만 부 정도씩 꾸준히 입고 있다. 또 세계 주요 언어로 두루 번역되었는데, 특히 러시아에서는 60만 부가 넘게 팔렸다. 68혁명의 소용돌이를 건너온 작가 파스칼 레네의 날카로우면서도 웅숭깊은 현실 인식이 문학, 나아가 예술 작품으로 피어난 소설이다.

‘돈 카밀로와 페포네’ 시리즈로 지난 몇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자전적 가족 소설. 과레스키는 『까칠한 가족』에서 평범한 가족이 엮어 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애증, 오해와 갈등을 특유의 유머와 날카로운 필치로 그려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명 소설가이나 집안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화자 조반니노와 약간은 몽상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는 듯한 마르게리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는 소년 알베르티노, 어리지만 논리 정연한 소녀 파시오나리아는 가족이라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삶과 일상적 드라마를 매우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다.

『까칠한 가족』 그 두 번째 이야기. 『까칠한 가족』이 과레스키와 아내 마르게리타, 아들 알베르티노와 딸 파시오나리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 책에서는 손자 미켈로네와 손녀 페노메나, 가정부 조가 새롭게 등장한다.

알베르티노와 파시오나리아의 독립 이후 과레스키 부부는 신세대 현대 여성인 가정부 조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들이 엮어 가는 일상은 너털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따뜻하다. 또 다 읽은 후엔 가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만큼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옵티미스트 인생의 '되도록 밝은 면' 탐구 보고서

로렌 쇼터 지음 | 정숙영 옮김 | 신국판 | 444쪽 | 13,500원

신문이든 텔레비전이든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만 전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우울해지고 내 인생도 꼬인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낙관주의자들을 인터뷰하고 책을 쓰자. 그러면 나는 유엔 본회의장에서 낙관주의를 연설하는 유명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낙관주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3월의 읽을 만한 책



미셸 오바마 변화와 희망의 퍼스트레이디

엘리자베스 라이트풋 지음 | 박수연·홍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52쪽 | 13,000원

미국의 첫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인생 역정을 보여 주는 책. 시카고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의 대학 생활, 그리고 일류 법률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녀가 버락 오바마와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그녀만의 정치적인 신념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용기와 꿈, 희망과 자극을 선사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딸과 함께 읽는 미셸 오바마 이야기

데이비드 콜버트 지음 | 박수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200쪽 | 9,800원

시카고 서민층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미셸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어려움을 끝없는 도전으로 넘어섰고 프린스턴과 하버드 로스쿨, 일류 법률 회사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미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열정을 좇아 사회봉사에 뛰어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한 역사적인 여성에 관한 전기(傳記).

북리펀드 2009년 7월 선정도서



쉿, 조용히! 풋내기 사서의 좌충우돌 도서관 일기

스콧 더글러스 지음 | 박수연 옮김 | 신국판 | 424쪽 | 13,500원

도서관 사서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유쾌하게 풀어낸 에세이. 풋내기 사서인 저자는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 아이, 노숙자들을 통해 삶에 대해 배우고 도서관의 의미와 사서의 역할을 고민한다. 요절복통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사건들을 통해 저자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어머니를 돌보며 딸의 기나긴 작별 인사

버지니아 스티프 오언스 지음 | 유지화 옮김 | 신국판 변형 | 292쪽 | 11,000원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 병에, 그리고 곧이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도 심장질환이 있어 병원 신세를 지야 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집과 직장을 뒤로하고 고향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7년 동안 집과 노인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본다. 처음에는 간호 기록으로, 나중에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묵묵히 적어 나간 고백을 정리했다.

2007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Top 150 | 2008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선정 베스트 도서 10 | 2009 중앙일보 선정 올해의 책 증 놓치기 아까운 이 책



돌아보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구정모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0,500원

평생 청빈, 경절, 순명을 지키고 살 것을 서원하고 수도원에 들어온 지 23년째를 맞는 구정모 신부님이 만난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한 성직자가 걸어왔던 자취를 통해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바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비들의 고단한 여정 딸과 함께 읽는 답사 여행기

이용재 지음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500원

건축 평론가로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등을 통해 건축물에 담긴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다. 그들의 고단한 여정이 남아 있는 옛 건축물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아با와 딸의 대화를 통해 딱딱한 교과서 속 선비들이 툭툭 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2009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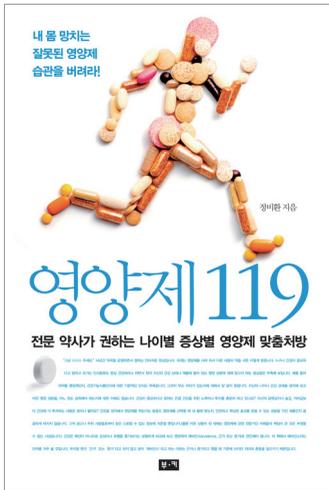


백수 산행기

김서정 지음 | 신국판 변형 | 292쪽 | 11,000원

불혹의 나이에 갑자기 백수가 된 저자가 어느 날 문득 북한산을 찾게 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초보 산행 장면은 한 편의 콩트고, 산에서 떠올리는 추억은 인생 수업이고, 힘겹게 지나간 등산 코스와 산행 노하우는 친절한 가이드이며, 북한산의 역사와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비사(秘史)는 문화유적 답사기이다.

북리펀드 2009년 5월 선정도서



영양제 119

전문 약사가 권하는
나이별 증상별 영양제 맞춤처방

정비환 지음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쏟아지는 영양제 속에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찾아라!

우리나라 성인 중 40% 이상이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지만 자신이 먹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는 약학 대학, 대학원, 제약회사 연구실, 약국까지 약학과 함께 한 30여 년간 쌓은 전문지식과 3년간 분석한 에비던스(evidence,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양제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편식하는 아이, 공부에 시달리는 수험생, 피로에 찌든 남편, 가사와 육아 등 스트레스 심한 아내, 갱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 나이와 증상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영양 성분을 꼼꼼히 알려 준다. 또 무엇을 얼마큼 언제 먹는 것이 효과적인지 선택과 복용법에 대해 상세히 말해 준다. 더 이상 주변의 말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영양제의 모든 것을 담았다. _세계일보
- ▶ 속설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영양제에 대한 진실을 풀어냈다. _약사공론



엄마는 모르는 내 아이 속마음

54편 일기로 들여다본 초등학교 심리 교과서

김성은 지음
신국판 변형 | 328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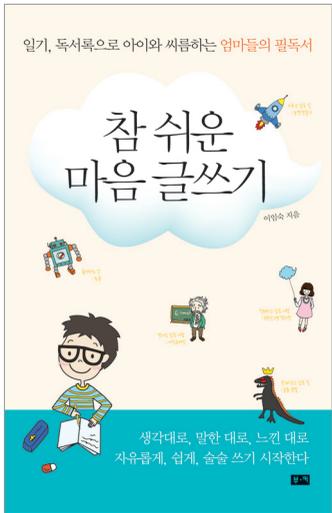
부모라면 한 번쯤 내뱉는 말, “누굴 닮아 이렇게 속을 썩이지!”

문제는 아이 마음의 빈자리! 부모가 마음을 챙기면 아이가 달라진다

상담전문가가 밝힌 부모와 자녀 관계 해법의 결정판!

23년간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온 저자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속상해하는 초등 아이 문제 행동 27가지를 뽑아 원인과 해법을 친절하게 짚어 준다. ‘공부하기 싫어해서, 지나치게 산만해서, 게임에 빠져 있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아서’ 등 부모를 속 터지게 하는 문제 행동에 아이와 엄마가 쓴 54편의 마음 일기가 실려 있다. 아이 마음 일기와 엄마 마음 일기를 통해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아이에게 어떤 엄마였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초등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 숨겨진 속마음을 알게 하고,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

- ▶ ‘이래저래라’ 양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놓은 이 책은 ‘부모 성장 교과서’라 부르고 싶다. _정희정, 한국아동상담센터 소장
- ▶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자신의 방식이 아닌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육아법. _한국일보



참 쉬운 마음 글쓰기

일기, 독서록으로 아이와 씨름하는
엄마들의 필독서

이임숙 지음
신국판 변형 | 304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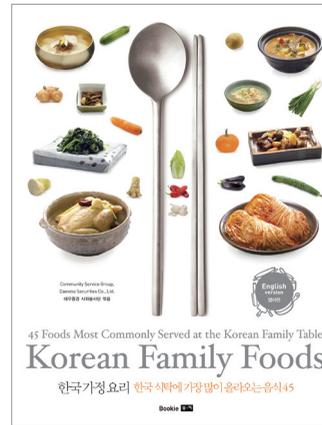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가 달라진다

엄마와 함께하는 '마음 글쓰기' 레시피

유아나 초등생이 가장 싫어하는 숙제가 바로 글쓰기다. 아이들과 매일 저녁 씨름하느라 부모 또한 고통스럽다. 글쓰기는 과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걸까. 저자는 오랜 상담 경험과 강의, 연구를 토대로 혼내거나 닦달만 해 온 엄마들에게 '마음 글쓰기'라는 특약 처방을 내린다. 아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끄집어내어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마음 글쓰기는 어떤 주제로도 글을 술술 써 내려 갈 수 있게 만든다.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높여 준다.

이 책에는 마음 글쓰기를 하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법, 글감과 주제 찾기, 칭찬 제대로 하기, 원하는 만큼 쓰고 다음 날 이어서 쓰게 하는 방법, 고쳐쓰기 등에서 일기와 독서록 나아가 책을 쓰는 방법까지 엄마가 집에서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목조목 알려 준다.

- ▶ 두고두고 써먹을 '글쓰기 레시피' 한 권을 얻은 것 같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_박현숙,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소장·초등 2학년 부모
- ▶ 마음 글쓰기를 해 보니 글을 수천 개를 써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_정윤우, 초등 1학년



한국 가정 요리

한국 식탁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음식 45

대우증권 사회봉사단 엮음
사륙배판 변형 | 각 권 164쪽 | 각 권 12,000원



매일 먹는 식사에서 연회 음식, 간식까지 소박하고 건강한 한국 요리 완벽 가이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가 한국 가정 요리를 쉽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총 10개 국어 버전으로 출간되는 안내서이다. 한국 가정에서 늘 먹는 밥, 반찬, 찌개, 국 등 기본적인 요리부터 특별요리, 별미요리, 간식까지 다양한 한국 요리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식사 도구 사용법부터 장, 고춧가루, 마늘 등 한국의 독특한 양념과 음식 재료, 그리고 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 사는 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 준다. 이 책 한 권이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한국 '집밥'의 따뜻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남편에게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몽골어로 쓰인 한국 요리책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_한사라, 몽골 출신 여성

『한국 가정 요리』는 독일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총 10개 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 해당 언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그 일, 정말 할 만합니까? 각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하는 직업의 세계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상은 어떤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직업인'만이 살아남는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대학생, 예비 사회인, 진로 지도에 고심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들에게 직업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잣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3년 12월 『PD가 말하는 PD』를 시작으로 기자, 의사, 간호사, 디자이너, 요리사, 방송작가, 항공승무원, 광고인, 건축가 등 현재까지 총 14권이 출간되었다.

- ▶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쓴 직업 이야기. **세계일보**
- ▶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는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연합뉴스**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 청소년 권장도서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2006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 2004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좋은 책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이상림 외 16인 지음
 신국판 | 222쪽 | 9,500원



17인의 건축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축가 생활 보고서. 좌충우돌 새내기 건축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공 건축가, 주택 건축가, 상업공간 건축가, 한옥 건축가와 한국 현대 건축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인 건축가인 고 김수근이 설립한 건축사무소 '공간'의 현 대표 이상림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속내와 건축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펼쳐 놓았다. 또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 구조 설계, 조경, 건축 CM에 이르는 더 넓은 건축가의 세계와 건축 유헌, 건축 저널 등 건축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권장도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정은숙 외 22인 지음
 신국판 | 256쪽 | 9,500원



1년을 갓 넘긴 초짜부터 출판사를 창업한 25년 차 베테랑까지, 또 문학, 인문, 예술, 경제경영, 실용, 어린이·교육 분야를 비롯해 학습, 어린이 학습만화, 대학출판부까지 여러 분야에서 책을 만드는 출판편집자 23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편집자의 개성이 어떻게 저자의 원고와 어우러져 책에 반영되는지, 책 만드는 일이 장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 디자인 제작 홍보 등 책 전반에 관여하는 편집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책 말미의 '15문 15답'에는 출판사 면접의 특성, 포트폴리오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도움말이 담겨 있다.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국정에 외 19인 지음
 신국판 | 272쪽 | 9,500원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를 흔히 '차분주의의 꽃', '15초의 예술'이라고 한다. 이처럼 매력적인 광고를 만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책은 광고의 화려함 뒤에 숨어 '크리에이티브'에 목숨을 거는 광고인의 다양한 세계를 한눈에 보여 준다. 또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광고의 생생하고 흥미로운 뒷이야기는 광고인이라는 직업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밖에 광고 제작 후기와 프레젠테이션 체험기, 궁금증 14문 14답 등은 광고인이 되려는 이들에게 선배 광고인들이 들려주는 값진 조언이다.

- 1 PD가 말하는 PD | 2 기자가 말하는 기자 | 3 의사가 말하는 의사 | 4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 5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 6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 7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 8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 9 만화가 말하는 만화가 | 10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 | 11 스텐더디스·스튜어디스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 12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 13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 14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 군인이 말하는 군인(출간 예정)

뇌는 답을 알고 있다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뇌 클리닉

대니얼 G. 에이멘 지음 | 김승환 옮김
신국판 변형 | 392쪽 | 16,000원



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

송봉숙 지음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울가 마크 랜스버그 지음 | 박수연 옮김
신국판 변형 | 352쪽 | 13,800원



20년 이상 3만 건 넘는 뇌 영상 분석으로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뇌의 비밀을 풀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다른 장기와는 본질적으로 그 중요도가 다른 것이 바로 뇌다. 뇌의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체 변화, 성격 문제, 업무 능력 저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뇌가 건강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 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9가지 뇌 원칙과 더불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뇌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훌륭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실려 있어 안내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_서울신문

북리펀드 2010년 12월 선정도서

영어 실력,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평생 영어에 주눅 든 우리에게 던지는 20년 경력 영어 교사의 제언

30년 영어 공부를 하고 20년 동안 영어 교사로 지낸 저자가 마흔둘의 나이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TESOL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저자는 제 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어 구사에서 원어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간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좌절하게 된 이유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육 목표 때문이었다. 원어민이 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을 비롯해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미국 현지 적응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 한 권에!

외국인이 미국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서 범규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행동까지, 미국에서 겪을 법한 모든 상황이 망라되어 있는 책. 숙박, 식사, 대중교통, 전화, 면허, 은행 거래, 취업, 세금, 결혼, 이혼 등 62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 각계각층 미국인 2000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민법·민법·형법·상법·세법·가족법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미국으로 출장, 연수, 관광, 유학, 취업,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미국 생활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생생육아

베베하우스 60만 엄마들이 묻고 강추한 육아 체험 노하우

베베하우스 아동발달센터 엮음 | 박호진 감수 | 사륙판 | 376쪽 | 9,800원

대가족이 모여 살던 옛날과 달리 경험적으로 얻은 육아 지식을 전수할 형편이 안 되는 현대 사회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사항들을 질문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 경험 있는 엄마들이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답변한 육아책이다.



고양이가 기가 막혀!

우아한 고양이를 미치게 하는 50가지 고민

베스 아델맨 지음 | 정숙영 옮김 | 박대곤 감수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000원

멋쟁이 고양이 동지 여러분.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왜요? 반려인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졸려 죽겠는데 자꾸 놀아 달라고 귀찮게 한다고요? 귀를 잡고 싶은데 반려인은 볼품없는 오뎅꼬치만 흔들고 있다고요? 저런. 어떻게 해야 반려인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지요.



강아지가 기가 막혀!

순진한 개를 미치게 하는 50가지 고민

스티브 더노 지음 | 정숙영 옮김 | 박대곤 감수 | 신국판 변형 | 268쪽 | 11,000원

명랑한 강아지 동지 여러분. 오늘도 머리가 아프십니까? 왜요? 주인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밥그릇을 뺏는다고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처박아 놓는다고요? 쫓쫓, 어떻게 해야 주인을 제대로 부러먹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온 동네 개들이 미워하는 작은 병원 동물의사의 일기

박대곤 지음 | 신국판 변형 | 320쪽 | 9,000원

동물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한 기록. 배꼽 빠지게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는 정말 유쾌한 이야기.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동안 애원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과 정보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세상이 주목한 책과 저자

김환영 지음
신국판 변형 | 312쪽 | 13,800원

셰익스피어와 에릭 시겔, 세상은 누구를 더 주목했나?

토크쇼보다 흥미로운 책과 저자, 시대의 삼중주!

세상을 흔든 책과 그 책의 저자들,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조망한 책이다. 때로 영감의 원천이었고 때로 아이들의 꿈이었으며, 때로 누군가의 삶의 지침이거나 커다란 위로였으며 뒤흔친 이들에게는 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던 36권의 책과 그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명저에 얽힌 이야기들은 토크쇼 못지않게 흥미롭고, 박학다식한 선배가 펼쳐 놓는 이야기처럼 재미있다. 그러나 단순히 책에 얽힌 소소한 뒷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책과 저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결코 만만치 않다.

오천 년 전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우리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까지 다양한 문제작들을 포괄한다. 책과 저자 그리고 시대가 함께 빛을 3중주의 선율, 즐거운 책담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오늘을 만든 묵중한 지식의 역사, 사유의 산맥과 마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 전문가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오늘의 세계를 만든 책과 저자들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_중앙선데이
- ▶ 보다 풍요로운 독서를 가능하게 해 준다. _머니투데이



가족의 두 얼굴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테라피

최광현 지음
신국판 변형 | 264쪽 | 13,800원

저마다 건드리면 툭 터지는 상처가 있다!

가족과 내 안의 상처,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

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을까. 어째서 가족과 함께여도 여전히 외롭거나 거리감이 느껴질까. 가족에게 내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는 뭘까. 가족의 아픔이 왜 되풀이될까. 나와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내가 나고 자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원인일 때가 많다. 그때 내 유년 시절의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아픔이 남아 있는지 직시하고 공감하다 보면 현재 가족의 문제도, 해결책도 보인다.

『가족의 두 얼굴』은 가족과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원인과 상처 치유를 명쾌하게 짚어 준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한 가족 사례는 내 가족 이야기인 듯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고 위로 받을 수 있다.

- ▶ 우리네 가족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들의 사례와 함께 저자가 겪은 솔직한 상처 고백이 펼쳐진다. 읽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고,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며 위로 받을 수 있다. _한국경제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강수돌 외 지음
신국판 변형 | 416쪽 | 14,800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2011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북리펀드 2011년 10월 선정도서

그 이름 불러 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아까운 책' 전문가 46인이 뽑은 이 시대의 숨은 명저들을 만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저들을 발굴, 조명하는 '아까운 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용과 의미는 '베스트'인 책.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숨은 걸작을 골라 서평과 함께 소개한다.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은 매해 출간될 '아까운 책' 시리즈의 첫 결실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1세기의 첫 10년을 결산했다. 강수돌, 강신주, 우석훈, 듀나, 장석주, 정혜윤, 홍기빈, 하지현 등이 시대의 '글쟁이' 46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안내한다.

- ▶ 책벌레들이 추천한 '진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며 왠지 모를 갈증을 느꼈던 독자들에게 시원한 해갈이 되어 줄 만한 책이다. _한국일보
-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어 온 책 시장에서 보기 드문 기획이다. _한겨레
- ▶ 여기 수록된 책들은 숨 가쁘게 달려 온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을 짚어 준다. 서평을 따라가다 보면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겪었던 크고 작은 변화와 시대의 고민이 한눈에 들어온다. _서울경제

동양학의 최고수에게 듣는다 남회근 저작선

남회근 선생은 중국어권 사람들에게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수행자다. 1918년에 태어났으니 지금은 아흔이 넘은 선생은 유교, 불교, 도교뿐 아니라 문학, 역사, 천문, 동서양 철학에도 통달한 대가로, 대만에 거주할 당시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자문을 구하는 국사로 추앙받았다. 선생의 강의는 유불도를 비롯한 동양 사상과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도 방대한 지식, 깊은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엄중한 가르침, 유머 담긴 화법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정평 있다.



남회근 저작선 3 주역계사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592쪽 | 25,000원

한 편의 소설을 쓰듯 자유자재로 풀어낸 계사전 강의

계사전은 공자가 역경을 연구하여 얻은 바를 소개한 보고서로, 역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이자 지침서이다. 역경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서 격인 십의 중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계사전은 역경을 보기 전에 먼저 읽으면 그 체계를 잡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진지한 통찰과 탁월한 안목으로 엄격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전혀 무겁지 않게 강의한다.



남회근 저작선 2 불교 수행법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800쪽 | 30,000원

부처님의 수승한 불법 수행 가르침이 되살아난다

제가 및 출가 수행자들이 올바른 견지에서 심신을 닦아 성취를 이루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수행 지침서. 대승과 소승을 넘나드는 경전, 대선사들의 각고의 수행 과정과 견도 및 행원을 담은 기록, 단계별 수증 경계 및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온갖 미혹과 타파 방법을 철저히 부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짚어 준다.



남회근 저작선 1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664쪽 | 25,000원

석가모니부처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가 되살아난다

출가 수행자들조차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금강경을 남회근 선생은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더군다나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례를 들어 가며 명쾌하면서도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처의 가르침에는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

바둑의 발견 ①②

문웅직 지음
신국판 | 399쪽 · 343쪽 | 각 권 13,000원



바둑판 위에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바둑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우리 사회에 지적 충격을 준 저자가 바둑의 규칙이나 덤, 수를 이야기하면서 바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1권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세 차례의 패러다임 변천을 겪으며 성립된 현대 바둑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의 도달 수준과 의미를 분석한다. 2권에서는 바둑을 구성하는 조건들과 그 상호 작용에 대해 고찰하며 바둑의 사회적 진화 과정을 규명한다.

2005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20선

인문으로 읽는 주역

신원봉 지음 | 신국판 | 696쪽 | 23,000원



고급의 뛰어난 해석을 모아 주역의 본뜻을 구한다!

주역은 3천 년이라는 그 역사만큼이나 해석과 이론이 분분한 텍스트다. 이 책은 고급(古今)의 뛰어난 주역 해석을 한자리에 모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석을 취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석 틀을 가지고 64괘 괘효사의 본뜻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주역에 대한 오랜 신비화와 현학적 해석을 걷어 내고 나면, 주역이 평이한 생활 용어로 기술되어 인간사와 그에 대한 정제된 지혜와 교훈을 담은 한 편의 문학 작품임을 느낄 수 있다.

주역의 발견

문웅직 지음 | 신국판 | 384쪽 | 16,000원



주역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논리로 추적한 주역의 본질

저자는 주역에 대해 상이한 주석과 해석이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 없는 부호와 의미 있는 부호를 혼동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한다. 또 은유의 속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경의 언어를 이해하려 했기에 해석 오류가 수없이 쌓였음을 밝힌다. 나아가 점(占)이 결코 허황된 미신이 아니며 얼마든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삐딱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

프랑스 아 다고네 외 22인 지음 | 신지영 옮김 | 신국판 | 228쪽 | 11,000원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출제된 철학 문제들에 대해 스물 두 명의 예술가·지식인들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답한 책. 철학이 철학자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개념, 이론만을 외우는 학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2008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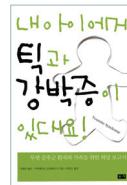


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예술, 사랑,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앙드레 랑가네 외 지음 | 박단 옮김 | 신국판 | 253쪽 | 10,000원

프랑스 주간지 『엑스프레스』의 편집주간인 도미니크 시모네와 유전학자인 앙드레 랑가네, 동굴 전문가인 장 클로트, 신석기 시대 전문가인 장 길레네가 펼치는 300만 년 동안의 인류 이야기. 마치 아이들처럼 모든 문제들을 풀어낸다.



내 아이에게 틱과 강박증이 있대요!

앙겔라 솔츠·아리베르트 로텐베르거 지음 | 박진근 옮김 | 신국판 | 288쪽 | 12,000원

틱과 강박,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와 의사가 쓰고 엮은 투렛 증후군 환자들의 투렛 증후군 극복기. 나아가 투렛 증후군에 흔하게 동반되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강박 장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아이에게 부모는 무엇일까?

김태형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2,000원

베토벤과 저자의 가상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심리 상담기. 베토벤에 대한 심리 분석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자기 분석'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심리 상담의 내용과 방법,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08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

아키유키오 지음 | 김원식 옮김 | 신국판 | 199쪽 | 8,000원

학교 폭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폭력을 살펴봄으로써, 폭력과 비폭력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비폭력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비폭력 운동은 '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들꽃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①②③

홍순명 지음 | 신국판 | 213쪽 · 229쪽 · 259쪽 | 1·2권 6,800원 3권 7,900원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이 우리 전래 이야기의 비교육적인 면들을 바로잡아 현대적이고 교육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 재구성했다. 선생은 심청이와 흥부, 홍길동, 선녀와 나무꾼 등 전래동화 주인공들에게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수난을 투영하면서 이 땅의 민초들이 들꽃처럼 곳곳하게 살아가며 만드는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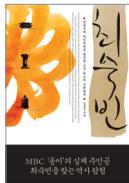
47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수상
2004 문화관광부 교양 부문 추천도서
2004 전교조 선정 읽을 만한 책
2004 책따세 선정 여름방학 권장도서



홍순명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

홍순명 지음 | 신국판 | 272쪽 | 9,500원

“노동의 참된 가치를 알며, 사람과 지역과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이 시대의 평민을 길러 내자.”는 기치 아래 1958년 설립된 풀무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 보면서 이 시대 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 주어야 할지 고민한다.



최숙빈 속종시대 여인천하를 평정한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김종성 지음 | 신국판 | 264쪽 | 12,000원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이자 속종 시대 여인천하를 평정한 최숙빈. 이 책은 정국 주도권을 노린 치열한 당쟁 구도와 1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 최숙빈과 함께 호흡했던 당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역사 탐험을 펼친다. 장희빈과 숙명의 대결을 펼치며 아들 영조의 시대를 준비한 한 여인의 면모가 오롯이 그려진다.

북리펀드 2010년 8월 선정도서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루이스 프로이스 지음 | 오만, 장원철 옮김 |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 신국판 | 364쪽 | 16,000원

임진왜란을 전후해 포르투갈 선교사 프로이스가 교황청에 보고한 일본 정세 보고서. 당시 일본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서구인의 눈에 비친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정세나 전쟁 발발, 전개 모습 등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김교신 전집 (전7권) 노평구 엮음 | 신국판 양장 | 각 권 400여 쪽 | 각 권 18,000원

김교신을 말한다

노평구 엮음 | 신국판 | 404쪽 | 14,000원



일제 시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고자 함석헌 등과 함께 『성서조선』을 발행하면서 초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주창한 김교신 선생의 글 모음집. 1권 인생론은 진정한 기독교도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2권 신앙론은 기독교도의 신앙관과 신앙 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3권 성서 개요는 구약 전편과 신약 일부의 집필 배경과 간단한 내용 요약을 통해 신구약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했고, 4권 성서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명한 그리스도론이자 그리스도 신도론이다. 5~7권은 김교신 선생의 엄정한 내면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기 모음이다.

별권 『김교신을 말한다』는 갈렐리 호반의 어부들이 가졌던 초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주창한 김교신 선생에 관한 회고록 모음집이다.

42회 한국출판문화상 전집 부문 수상



성서조선 영인본 CD

김교신 외 지음 | 김교신전집간행위원회 발행 | 90,000원

김교신, 함석헌 선생 등이 일제 시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기 위해 발행하던 기독교 잡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의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158권 전권의 영인본을 수록한 CD. 『성서조선』은 민족적 색채가 강한 글을 자주 실은 탓에 일제에 의해 관련자 전원 구속, 책자 전부 압수·소각, 구독자 전원 연행이라는 가혹한 탄압을 받다가 1942년에 폐간되었다.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

박상익 지음 | 신국판 | 254쪽 | 8,000원

서양사를 전공한 저자가 구약성서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한 책.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다룬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근동 지방의 지정학적 특징과 히브리 종교의 특수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 12소(小)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들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살핀다.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우리의 가슴, 우리의 눈으로 파악한 우리 시대 100년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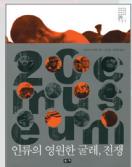
20세기 100년의 결산서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내셔널리뷰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위해 도색되고 변형된 20세기의 진실한 모습을 복원한다!



유예된 유토피아, 공산주의

필립 뷔통 지음 | 소민영 옮김 | 사륙배 변형 | 252쪽 | 1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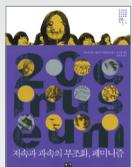
러시아 혁명에서 소련 해체까지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주요 역사적 단계들을 기술하고, 이어서 핵심 인물들의 일대기와 공산주의 체제와 관련된 주요 양상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류의 영원한 굴레, 전쟁

프랑수아 제레 지음 | 고선일·유재명 옮김 | 사륙배 변형 | 283쪽 | 17,500원

20세기의 주요 분쟁, 분쟁의 주체와 동기, 21세기의 분쟁. 이렇게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지난 세기에 세계화된 존재로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전쟁과 분쟁의 냉혹한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 동기와 주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양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저속과 과속의 부조화, 페미니즘

사빈 보지오 발리시·미셸 장카리니-푸르셀 지음 | 유재명 옮김 | 사륙배 변형 | 265쪽 | 17,500원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만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인간' 여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과정을 20세기의 주요 사건과 중요 인물들을 통해 제시한다. 또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한다.

2007 출판문화진흥재단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7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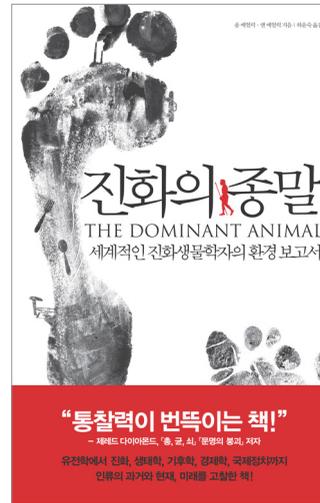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

피에르 제르베 지음 | 소민영 옮김 | 사륙배 변형 | 248쪽 | 17,500원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국가 자본주의인가? 인종 차별주의 국가인가, 다문화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모델인가, 재앙인가? 100년에 걸친 미국의 여정을 통해 그 답을 구한다.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진화의 종말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의 환경 보고서

폴 에얼릭·앤 에얼릭 지음 | 하윤숙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 | 560쪽 |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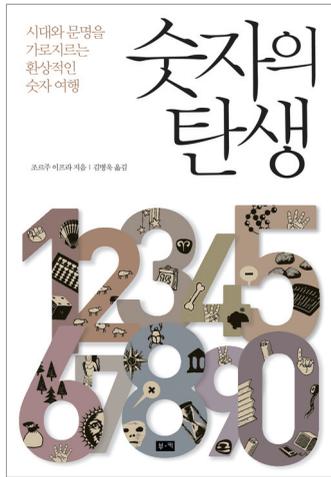
호모 사피엔스 한 종이 어떻게 지구를 위협하게 되었을까?

진화론의 모든 쟁점과 환경·정치 문제를 접목시킨 걸작!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적·문화적 진화를 하였고, 그 덕분에 과학 발전을 이루고 지배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진화론의 모든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선택압'이 된 인류는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시켰으며, 그 자신 또한 스스로 변화시킨 환경의 영향을 되받는 미래의 '멸종 위기종'으로 몰리고 있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에얼릭 부부는 진화론에서 기후학, 인구학, 생태학, 국제 정치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통해 인류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전망한다.

▶ 통찰력이 번뜩이는 이 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둘 사이의 상호 영향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로 이끄는 훌륭한 안내자이다. 이 안내자를 따라가는 동안 당신은 여기저기서 맛깔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_재러드 다이아몬드, 『충, 균, 쇠』 저자

▶ 진화생물학을 '생물학'의 영역에 가둬 두지 않고 환경, 생태, 문화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_국제신문



숫자의 탄생

시대와 문명을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숫자 여행

조르주 이프라 지음 | 김병욱 옮김
신국판 변형 | 464쪽 | 16,000원

북리펀드 2011년 9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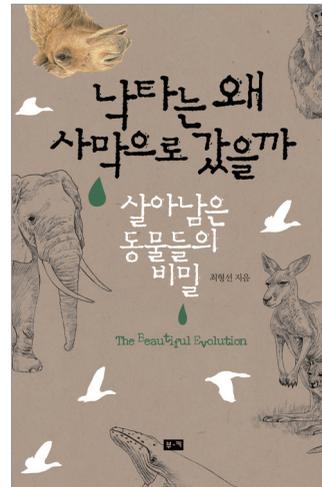
1과 2만 알던 선사시대에서 0을 깨달은 15세기까지

동서양의 위대한 발명이 좇아 온 숫자 발명의 역사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 옛날에는 어떻게 셈을 했을까? 누가 0을 발명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숫자는 불의 사용이나 농경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발명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숫자의 역사는 선사시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인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숫자의 탄생을 살펴봄에 지성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보가 인류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수학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저자답게 숫자가 역사와 만나는 지점을 절묘하게 잡아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청소년과 대중이라도 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것만으로 새로운 호기심과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 수학의 역사가 아니라 숫자의 역사를 다루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_프레시안
- ▶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로도 적격이다. _천지일보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살아남은 동물들의 비밀

최형선 지음
신국판 변형 | 256쪽 | 14,000원

2012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2011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북리펀드 2011년 6월 선정도서

지구 생태계 대표 동물들의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치타의 얼굴에는 왜 까만 줄이 있을까? 기회주의자를 왜 박쥐라고 부를까?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여기에 답하는 동시에 에베레스트를 넘는 줄기리기, 바다로 간 고래 등 지구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덟 동물을 통해 살펴본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늘 같은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왔을 것 같은 동물들이 사실은 수천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 준다.

등장 동물들의 신체 구조와 생존의 비밀을 자세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고 인간 사회에 비추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 생태학 박사인 저자는 “생태계는 다양한 생존 노력이 모여 공존의 기쁨을 알려 주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 ▶ 다양한 동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넓고 깊게 다룬다. 이 책만큼은 누구에게 주지 않고 두고두고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_오마이뉴스



미스터 풍 과학에 빠지다

호기심으로 떠나는 창의력 여행

송은영 지음 | 박수영 그림
신국판 변형 | 272쪽 | 12,500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북리펀드 2012년 1월 선정도서

퀴즈와 콩트, 좌충우돌 코미디를 한데 버무린 '명랑 과학'의 세계!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 두면 더 달달해지는 이유는 뭘까? 호수가 뽕뽕 얼었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 있을까? 기계로 바람을 넣은 풍선은 공중에 잘 뜨는데 입으로 분 풍선은 왜 그렇지 못할까? 호기심과 엉뚱함으로 푹푹 뭉친 미스터 풍과 함께 떠나는 창의력 여행.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과학 원리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 궁금증 등을 1~4컷짜리 카툰을 통해 제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과학이라면 지레 부담부터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다. 사소한 호기심에서 발전한, 과학사의 발명과 발견 에피소드도 장마다 소개돼 있다.

1999년 출간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Mr. 풍 과학에 빠지다』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만화를 곁들여 펴낸 개정 증보판이다.

▶ 시트콤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과학 지식을 실어 나르는 과학책. _세계일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학

잘못된 과학 정보를 바로 가려내는 20가지 방법

세리 시세일러 지음 | 이종호 옮김 | 신국판 변형 | 292쪽 | 14,800원

매일 만나는 과학 정보에 거짓말이 넘쳐난다면?

퀴즈보다 재미있는, 과학 이슈 진실 가리기!

놀랍게도 과학 뉴스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고 이따금 새로운 논쟁이라도 벌어지면 혼란에 빠진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닌데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 책은 과학 수업이 지겨웠던 일반인이나 과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과학 이슈의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

북리펀드 2011년 2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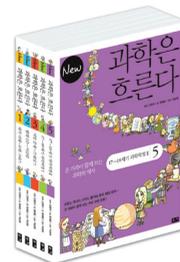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가마타 히로키 지음 | 정숙영 옮김 | 이정모 김수 |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인간을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한 14권의 과학책

고도대 학생들이 뽑은 '가장 수업 받고 싶은 교수' 1위에 빛나는 가마타 히로키가 14권의 과학 고전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갈릴레오의 『시데 레우스 눈치우스』로부터 다윈의 『종의 기원』, 카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왓슨의 『이중나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본질과 내용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2011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1 책따세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 북리펀드 2010년 12월 선정도서



New 과학은 흐르다 (전5권)

신영희 만화 | 정혜용 글 | 박성래 김수 | 사륙배판 | 각 권 210쪽 안팎 | 각 권 12,000원

과학사와 세계사와 위인전이 만화 한 권에...

아랍에서도, 유럽에서도 읽는 우리 과학 만화!

고대부터 근대까지 주요한 과학 발견의 현장을 만화로 구성해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도록 한 교양 학습 만화. 과학적 발견이 이뤄진 과정을 인류 문명사적 시각에서 풀어 나간다. 과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문·교양 지식까지 쉽게 체득할 수 있다.

2005년 출간되어 우수과학만화로 자리 잡은 『과학은 흐르다』의 개정판. 현재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중국, 대만,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 세계가 함께 읽고 있다.

2005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추천 만화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기획 실용 만화 |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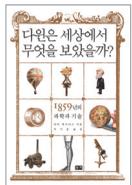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①②

1 빛을 쫓아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른다 | 2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나다
송은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각 권 25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울렁증을 일으키는 수학식은 가능한 한 줄이고, 약간의 물리 상식과 중학교 졸업생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2010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10 과학창의재단 선정 우수 과학도서
2010 포스코교육재단 선정 학부모 권장도서 |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1859년의 과학과 기술

피터 매시너스 지음 | 석기용 옮김 | 신국판 | 416쪽 | 16,000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1859년. 저자는 이 역사적인 해에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1859년과 그 전후에 걸쳐 붓물 터지듯이 일어난 큰 변화가 『종의 기원』을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종의 기원』은 단지 1859년이 이룩한 수많은 혁신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달력과 권력

이정모 지음 | 신국판 | 260쪽 | 8,500원

달력에 얽힌 사건을 통해 과학과 종교, 권력의 야합과 대립을 밝힌 역사서이자 과학서. 기원전 6000년경부터 현대의 그레고리우스 달력에 이르기까지 달력의 변천사와 그에 얽힌 이야기, 달력과 관련된 여러 금금증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2001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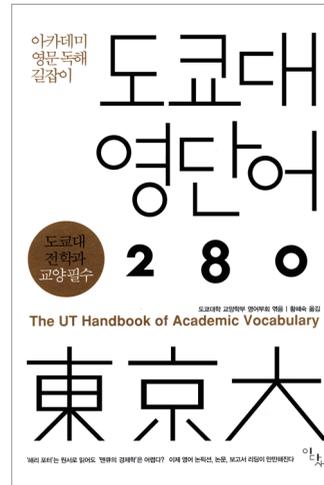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엄마와 두 딸의 흥미진진 과학 수다

이영미 외 지음 | 신국판 | 280쪽 | 9,800원

현직 과학 교사인 엄마가 주방에서 두 딸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면서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문턱 낮은 실험실'로 변신한다.

2005 서울시교육청 선정 추천도서 |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2004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 과학도서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도쿄대 영단어 280

아카데미 영문 독해 길잡이

도쿄대학 교양학부 영어부회 엮음 | 황혜숙 옮김
사륙판 | 456쪽 | 14,000원

『해리 포터』는 원서로 읽어도 『맨큐의 경제학』은 어렵다?

도쿄대 교양학부 영어과 교수들이 가려 뽑은 영단어 길라잡이

『도쿄대 영단어 280』은 도쿄대 교양학부 영어과 교수들이 함께 쓴 영단어 책으로, 영어 원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종종 잘못 해석되는 단어를 선별해 수준 높은 예문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철학, 과학, 역사, 정치, 경제 분야 책은 물론이고 각종 논문, 보고서에서 뽑은 수준 높은 영어 문장이 독해의 눈을 넓혀 준다. 더불어 그간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생겼던 독해와 작문의 오류 문제, 그리고 원어민과의 소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일본에서 출간 즉시 7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현재 도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교양 영어 수업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또 업무상 영어를 자주 접하거나 써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의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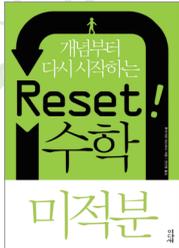
▶ 각 어휘는 정확한 쓰임과 용법을 따른다. 예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지식을 담고 있다. 대학 교양 영어는 물론, 영어 전공서적 독해에도 도움이 된다. _파이낸셜뉴스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Reset! 수학 시리즈

수학의 기초 체력 단련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개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친절한 수학 개념 해설서'다.

"개념과 원리를 알려 준다"는 책들이 대부분 기존의 문제집에서 개념과 원리 부분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 비해,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개념'과 '사고법'을 중점적으로 파고든다.



미적분

후카가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여러 비유를 통해 미적분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적분의 딜레마 문제는 미분을 이용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미분과 적분의 본질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북리뷰 2012년 3월 선정도서

확률과 통계

후카가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16쪽 | 11,000원

확률 계산에서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나 오해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 확률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건이란 무엇인지, 또 확률 계산 시 주의할 점이나 요령을 흥미로운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지수와 로그

후카가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16쪽 | 11,000원

지수와 로그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개념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세상은 곱셈의 원리, 지수의 원리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이를 덧셈의 원리에 따라 파악한다. 이로 인한 오해와 착각을 설명하면서 지수의 본질에 더욱 다가간다.

허수와 복소수

후카가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허수와 복소수의 개념을 알수록 실수 개념이 명확해지고 수의 체계가 잡힌다. 유리수와 무리수, 음수와 허수가 인정받는 과정을 살피고, 더불어 실수와 허수의 상위 체계인 복소수를 복소평면 위에 나타내거나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수학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준다.



수능 수학의 지름길 : 수학1

수학멘토 준교생의
실전에 강한 문제 풀이의 기술

김준교 지음
사륙배판 | 304쪽 | 15,000원



수능 수학의 지름길 :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멘토 준교생의
실전에 강한 문제 풀이의 기술

김준교 지음
사륙배판 | 340쪽 | 15,000원



시중 어느 문제집에서도 볼 수 없는
핵심을 꿰뚫는 최적의 풀이 과정을 담았다!

대형 입시학원에서 수리영역 대표 강사로 재직하고, 네이버 카페 '준교생 수학교실(www.gsstudy.net)'에서 무료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수학 도우미'로 활동해 온 저자의 수학 문제 풀이 노하우를 오롯이 담은 책.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중요 유형 205문제를 엄선해 지수와 로그함수, 행렬, 수열 등 총 3장으로 분류해 놓았다. 단순한 요약식이나 문제 나열식의 기존 수능 수학 도서와는 달리 수능 수학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 가장 큰 장점은 준교생만의 특별한 문제 풀이법이다. 스텝1, 스텝2 단계별 풀이로 한 단계씩 밟아 갈 수 있어서 좋다. 준교생은 중위권에겐 정말 희망이다. _독자 '또 다른 도전'
- ▶ 두세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복잡한 문제라도 빨리 풀 수 있도록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_홍국진,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수학과 교사

푸는 수학이 아닌 '읽는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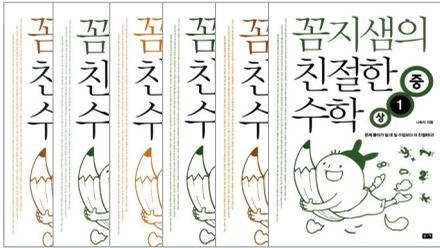
읽기만 해도 등급이 올라가는 문제 풀이의 기술!

'수능 수학의 지름길 시리즈' 두 번째 권. 이번 책은 2012년 수능부터 새로 추가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대표적인 문제 284문항을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에서 뽑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답을 구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주로 다루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마치 과외 선생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듯한 준교생의 친절한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수학에 대한 울렁증이 사라질 것이다.

- ▶ 차례 구성이 정말 좋다. 자신이 풀고자 하는 유형만 쓱 골라서 풀 수 있다. 부족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짚고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_독자 '라피스'
- ▶ 이 책은 철저하게 수험자 입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수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_박왕근, 박왕근 박사의 수학교청연구소장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1 상·하, 중2 상·하, 중3 상·하

나속자 지음 | 신국판 변형 양장 | 각 권 40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개념도 원리도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는 손도 못 댈까요?

안심하세요.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은 문제집인데도 개념과 원리에 대해 중간중간 계속해서 일깨워 줍니다. “이건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건너뛰지 않으니 모르는 과정을 확실히 익힐 수 있습니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의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어느덧 익숙해지게 됩니다.

중1 상권 | 집합 | II 자연수 | III 정수와 유리수 | IV 문자와 식 | V 함수 | 정답 및 풀이 **중1 하권** | 통계 | II 기본도형 | III 작도와 합동 | IV 평면도형의 성질 | V 입체도형의 성질 | 정답 및 풀이 **중2 상권** | 유리수와 근삿값 | II 식의 계산 | III 연립방정식 | IV 부등식 | V 일차함수 | 정답 및 풀이 **중2 하권** | VI 확률 | VII 삼각형의 성질 | VIII 사각형의 성질 | IX 도형의 닮음 | 정답 및 풀이 **중3 상권** | 실수와 그 계산 | II 식의 계산 | III 이차방정식 | IV 이차함수 | 정답 및 풀이 | 제곱근표 **중3 하권** | V 통계 | VI 피타고라스의 정리 | VII 삼각비 | VIII 원의 성질 | 정답 및 풀이



수학에서 '통합 논술'의 기초까지 친절한 도형 교과서 ① ② ③

나속자 지음 | 신상희 그림 | 신국판 | 각 권 27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이 책만 있으면 바쁜 선생님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도 도형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단순한 도형 문제의 풀이가 아니라 기하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통합 논술'의 기초인 논리적 사고를 다지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1권 도형의 기초 | **2권** 도형의 성질과 닮음 | **3권** 피타고라스와 원



수학을 잘하고 싶은 중딩들을 위한 친절한 수학 교과서 ① ② ③

나속자 지음 | 신상희 그림 | 신국판 | 각 권 250쪽 내외 | 각 권 9,800원

23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끈 어느 수학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옮겼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수학의 원리와 기초 개념을 설명하면서 수학과 관련된 역사적 에피소드나 생생한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1권 집합과 수 | **2권** 식과 함수 | **3권** 통계와 확률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김민식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64쪽 | 9,800원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영어 고수 17명이 자신들의 영어 공부 노하우를 털어놓았다. 이들도 처음부터 영어 고수는 아니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낯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솔직담백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

부모와 자녀가 만날 싸우는 공부 고민 55가지

이지은 지음 | 신국판 변형 | 336쪽 | 11,000원

어떻게 하면 '공부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공부의 기본인 '학교 공부'를 따라잡고, 학원과 과외 등 '학교 밖 공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알려 준다.



한자 오디세이

정춘수 지음 | 사륙배판 | 472쪽 | 16,000원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한자 학습서 역할을, 보통 때에는 사전(字典) 겸 자원(字源) 사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현대의 갑골문 연구 성과에 기반해 재정리한 120개의 핵심 한자를 통해 2000여 생활 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0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 실용만화



한눈에 깨치는 우리 아이 처음 한자

정춘수 지음 | 이해경 그림 | 사륙판 변형 | 320쪽 | 9,800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한자 책. 그림과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한자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① ②

정춘수 지음 | 이해경 그림 | 신국판 | 248쪽, 236쪽 | 각 권 12,000원

초등학교 권장 한자 600자+50자와 각 한자의 기본 정보(획수, 부수, 한자 급수)를 실은 초등 고학년용 한자 학습서. 초등학생용 한자 급수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초등 교과서에서 가려 뽑은 1000여 자의 낱말도 실려 있어 어휘력도 늘릴 수 있다.

도서출판 부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10 산성빌딩 6층

전화 02 325 0846 **팩스** 02 3141 4066

홈페이지 www.bookie.co.kr

이메일 webmaster@bookie.co.kr

블로그 blog.bookie.co.kr

blog.naver.com/bookiemb

트위터 [@bookiepub](https://twitter.com/bookiepub)

페이스북 www.facebook.com/bookiemb

부키 직거래 서점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온라인 서점 교보 인터넷, 리브로, 서울 인터넷,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도매 및 출판 동남서적, 만나서적, 북센, 북플러스, 서당, 송인서적, 자유서적, 책이랑, 출판협동조합

서울 지역 골드북, 노원문고, 흥익문고

인천·경기 지역 경인문고, 대동서적, 지에스 인천공항

대전·충청 지역 중부서적

대구·경북 지역 한일서적

부산·경남 지역 영광도서

광주·전라 지역 중앙서점, 충장서림

